

Imperial Struggle

제국의 투쟁



게임 전술서

목차

게임 준비.....	2	역사적 배경	14
자세한 게임 예시	3	작가의 말	27
추가 예시	12	참고 문헌 및 게임	28
카드 드리븐 게임(CDG) 플레이어를 위한 지침	13	크레딧	28

GMT Games, LLC • P.O. Box 1308, Hanford, CA 93232-1308 • www.GMTGames.com

DiceTree Games • 보드피아 (1040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46-30 신평플로스타 806호 • www.boardpia.co.kr

게임 준비



1. 게임 보드를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2. 사건 카드 더미에서 왕위 계승 시대에 해당하는 카드를 분리합니다. 왕위 계승 시대 카드를 섞어서, 사건 카드 현황판(A)의 카드 더미 영역에 놓습니다. 제국 시대 및 혁명 시대 사건 카드는 따로 둡니다. 추후에 사용합니다.
3. 투자 타일을 섞어서, 투자 타일 현황판(B)의 투자 타일 더미 영역에 뒤집어 쌓아 놓습니다.
4. 각자 자신의 기본 전쟁 타일을 가져와 섞고, 자신의 플레이어 매트(C1, C2)의 해당 칸에 뒷면으로 놓습니다. 그 후, 양측은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에 해당하는 보너스 전쟁 타일을 가져와 섞어서, 자신의 플레이어 매트의 보너스 전쟁 타일 칸에 뒤집어 쌓아 놓습니다.
5. 다음 내용대로, 지도 상에 국기 및 함대를 배치합니다(지도 상에 시작 국기를 배치하는 곳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각자 남은 함대는 자신의 플레이어 매트의 건조 전 함대 칸에 놓습니다.
6. 게임 보드 옆에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현황판(D)을 놓습니다. 그 후, 각자 기본 전쟁 타일을 4개씩 뽑아, 각 전장에 순서대로 1개씩 뒤집어 놓습니다. 전쟁 타일 배치가 끝나면, 플레이어는 자신의 전쟁 타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7. 공용 기록 트랙(E)에서 승점 마커를 15칸에 놓고, 게임 턴 트랙의 1턴에 턴 마커를 놓습니다.
8. 6개의 세계 수요 타일을 섞어 세계 수요표(F) 근처에 뒤집어 놓습니다.
9. 8개의 보상 타일 8개를 섞어 각 지역의 보상 구역마다 2개씩 뒤집어 놓습니다.
10. 게임 중 사용할 수 있도록 분쟁 마커 및 소진 마커를 게임 보드 근처에 놓습니다.
11. 지도 상에 모든 이점 타일을 앞면으로 놓습니다(밀 및 알곤퀸 족의 침략 타일은 제외).
12. 우선권 칸(G)에 우선권 마커를 프랑스 쪽으로 놓습니다.

* 투자 타일, 기본 전쟁 타일, 보너스 전쟁 타일, 세계 수요 타일은 게임에 포함된 주머니를 이용하여 게임 진행이 더 편리합니다.

초기 국기 및 플레이어 마커 배치



영국:

- 유럽
 - 오스트리아(연맹 2), 네덜란드 공화국(비용 3의 위신 칸), 독일 연방주(연맹 3)에 국기 배치
- 북아메리카
 - 매사추세츠 만, 북부 식민지, 허드슨 밸리, 체서피크에 국기 배치
- 카리브 제도
 - 캐롤라이나, 조지아, 자메이카, 바베이도스, 세인트 루시아에 국기 배치
- 인도
 - 마드라스, 칸치푸람, 캘커타, 미드나포레에 국기 배치
- 해군 구역: 함대 2개
- 공용 기록 트랙
 - 부채 한도: 6; 현재 부채: 0; 조약 점수: 0
- 이점 타일 칸(플레이어 매트)
 - 밀



프랑스:

- 유럽
 - 스페인(연맹 3), 오스트리아(우측 하단, 비용 3의 위신 칸), 바바리아, 아일랜드(연맹 2)에 국기 배치
- 북아메리카
 - 퀘벡 & 몬트리올, 아카디아, 카타라퀴, 알곤퀸 족에 국기 배치
- 카리브 제도
 - 루이지애나, 생도맹그, 과들루프, 포트페, 마르티니크에 국기 배치
- 인도
 - 찬단나가르, 풍디세리, 카라이칼, 팔라시에 국기 배치
-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중앙유럽 전장): 보너스 전쟁 타일 1개
- 해군 구역: 함대 1개
- 공용 기록 트랙
 - 부채 한도: 6; 현재 부채: 0; 조약 점수: 0
- 이점 타일 칸(플레이어 매트)
 - 알곤퀸 족의 침략

자세한 게임 예시

연우와 지수가 제국의 투쟁을 플레이 합니다. 연우는 프랑스(파란색)를, 지수는 영국(빨간색)을 선택했습니다. 게임 준비의 6번 단계에서, 연우와 지수는 아래 전쟁 현황판에 따라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의 전쟁 타일을 뽑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모든 타일을 투명하게 공개한 상태지만, 실제 게임에서는 자신의 전쟁 타일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가 유럽에서 보너스 전쟁 타일을 1개 가지고 시작합니다. 연우가 프랑스 왕실 타일을 뽑았습니다.



이번 턴에 뽑은 세계 수요로 인해 카리브 제도의 경제적 가치가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1. 중앙유럽

전쟁 타일 +1 프랑스 왕실

전쟁 타일 +1

지역: 유럽

보너스 군사력: 오스트리아, 바바리아, 덴마크-노르웨이, 네덜란드 공화국, 독일 연방주, 시보이아

승차	승리 보상	패배 보상
1-2	2 승점	1 조약 점수
3-4	2 승점 + 1 정복 점수	2 조약 점수
5+	3 승점 + 2 정복 점수	3 조약 점수

추가 정복 가능 영지: 산 아구스틴, 아시엔토, 허드슨 만, 아카디아

2. 스페인

전쟁 타일 +1

전쟁 타일 +1

지역: 유럽

보너스 군사력: 동지, 사르데냐, 스페인, 함대

승차	승리 보상	패배 보상
1	1 승점	1 조약 점수
2-3	1 승점 + 1 정복 점수	2 조약 점수
4+	1 승점 + 2 정복 점수	2 조약 점수

추가 정복 가능 영지: 산 아구스틴, 아시엔토

3. 앤 여왕 전쟁

전쟁 타일 +2

전쟁 타일 +1

지역: 북아메리카

보너스 군사력: 본정 마커, 요새, 함대

승차	승리 보상	패배 보상
1-2	1 승점	-
3	1 승점 + 1 정복 점수	1 조약 점수
4+	1 승점 + 북아메리카 시장 1개에서 국기 제거 + 1 정복 점수	2 조약 점수

4. 자코바이트 혁명

전쟁 타일 -1

전쟁 타일 -1

지역: 유럽

보너스 군사력: 양식, 네덜란드 공화국,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본정 마커

승차	승리 보상	패배 보상
1-2	1 승점	-
3-4	2 승점	1 조약 점수
5+	4 승점	2 조약 점수

특수 규칙: 프랑스가 30점 차이로 승리할 경우, 턴 트랙에 자코바이트 승리 마커 1개를 놓습니다.

© 2020 GMT Games LLC • www.GMTGames.com • © 2021 DiceTree Games • www.DiceTreeGames.com

연우는 자신의 전쟁 타일을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자코바이트에는 약간의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수는 다소 불만족스러운 듯 보입니다. 특히 게임 초반에 북아메리카에서의 기반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우와 지수는 이제 첫 턴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1턴에서는 카드 덱이 및 부채 한도 페이지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건너뛹니다. 보상 페이지에서, 각 보상 구역의 맨 위 보상 타일을 앞면으로 공개합니다. (아래 보상 타일은 2턴의 보상 페이지에서 앞면으로 공개합니다.) 이번 턴의 지역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럽: 1 승점 (+1 조약 점수)
- 북아메리카: 2 승점
- 인도: 1 승점 (+1 조약 점수)
- 카리브 제도: 0 승점 (+1 조약 점수)

이번 턴에 북아메리카에서 높은 승점 보상이 공개되자, 지수가 이를 악다뭉습니다. 지수는 이미 북아메리카에서의 군사 배치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북아메리카 전장에 연우의 가장 좋은 기본 전쟁 타일이 배치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2 승점을

획득하려면 상대와 국기 및 함대 개수 차이를 2 이상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2 승점을 획득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플레이어는 세계 수요를 정하기 위해 세계 수요 타일 3개를 뽑습니다: 수산물, 담배, 설탕을 뽑았습니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카리브 제도의 보상 타일은 0 승점으로 이번 턴에는 조용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만, 카리브 제도에 세계 수요 상품 2개가 포함되면서, 세계 수요표에 따라 승점 5점을 제공하는 지역이 됩니다. 이제는 카리브 제도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수는 수산물이 뽑힌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가득합니다. 북아메리카에 투자할 가치를 더욱 높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앤 여왕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신속하게 그곳의 군사적 상황을 해결하기로 결심합니다.

플레이어들이 아직 소진 마커를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재설정 페이지를 건너뛰고, 이번 턴의 투자 타일을 공개합니다. 총 9개의 타일을 가져와서 가용 투자 타일 영역에 앞면으로 놓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 타일

투자 타일

투자 타일

투자 타일

투자 타일

투자 타일

투자 타일

투자 타일

투자 타일

투자 타일

사용한 투자 타일 덱

가용 투자 타일 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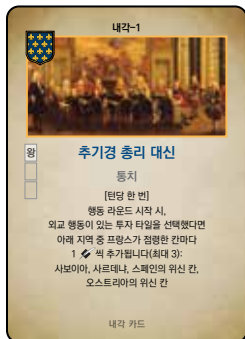
3 2	4 2	4 2	3 2	4 2
4 2	4 2	4 2	2 2	2 2

© 2020 GMT Games LLC • P.O. Box 1308, Hanford, CA 93232 • www.GMTGames.com • © 2021 DiceTree Games • www.DiceTreeGame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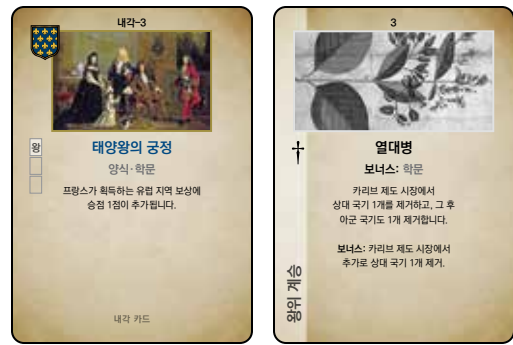
두 사람은 이번 턴에 공개된 투자 타일에 대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머리 속에 빠르게 계산해 봅니다. 투자 타일 3개에만 사건 기호가 있어서, 이번 턴에 최대 3개까지의 사건만 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건 2개를 플레이 하는 사람이 상대와 큰 차이를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주요 군사 행동이 있는 타일이 단 1개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턴의 군사 행동은 대부분 부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부가 군사 행동이 그려진 타일은 여러 개가 있으나, 2 군사 행동 점수 [♣]만 제공합니다). 또한 상대 함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주요 행동이나 사건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단 한 명의 플레이어만 공격적인 해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분쟁 마커가 있는 칸이라면 부가 행동으로도 상대 국가 및 함대를 제거할 수 있지만, 해군 구역에는 분쟁 마커를 놓을 수 없습니다.) 먼저 함대를 배치한다면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 적은 반면, 외교 행동 점수(♣)은 여유롭습니다. 세계적으로 연맹을 구축할 기회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플레이어들은 사건 카드를 뽑습니다. 연우는 #3 열대병, #12 군비 초과, #8 조세 개혁을 뽑았습니다. 지수는 #6 아메리카 원주민 연맹, #1 카나틱 전쟁, #15 이자 납부를 뽑았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을 플레이 할 수 있는 기회의 부족으로 인해, 모든 사건을 플레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상황에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춰 내각 카드를 선택하기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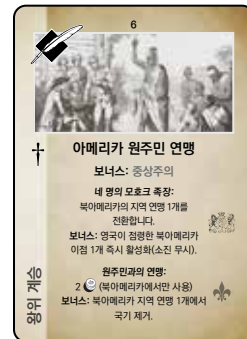
연우는 자신의 카드와 투자 타일을 살펴보고는, 이번 턴에 유럽에 집중하기로 결심합니다. 외교 행동은 많기 때문에 자신의 내각 카드인 #내각-1 추기경 총리 대신과의 효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우에게 통치 키워드로 인해 발동하는 보너스 효과를 주는 사건 카드가 없기 때문에 이번 턴의 통치 키워드는 무용지물이지만, 다음 턴에 통치 키워드가 있는 카드를 뽑을 수도 있고, 이 카드의 추가 외교 능력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우는 유럽에서의 강력한 외교적 행동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내각-3 태양왕의 궁정을 두 번째 내각 카드로 선택합니다. 유럽 보상을 획득할 때 보너스 승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문 키워드가 있어서 열대병 사건 카드의 효과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수에게는 또 다른 불행이 될 것입니다. 지수는 카리브 제도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가져가려 했기 때문입니다(아마도 세계 수위 상황을 고려한 결과이겠지요). 연우는 자신의 플레이어 매트에 내각 카드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내각 카드는 그 능력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지수는 아메리카 원주민 연맹 사건 카드를 보고 미소를 짓습니다. 그 효과가 꽤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너스 효과를 발동시킬 수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카드를 플레이 하려면 사건 기호가 있으면서 외교 주요 행동을 제공하는 투자 타일을 선택해야 합니다(카드의 좌측 상단에 외교 행동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사건 기호가 있는 투자 타일 2개가 외교 주요 행동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그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무리 없이 아메리카 원주민 연맹 사건 카드를 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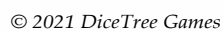


아메리카 원주민 연맹 사건의 보너스 효과를 발동할 수 있기를 바라며 중상주의 키워드가 있는 #내각-7 영국 동인도 회사를 첫 번째 내각 카드로 선택합니다. 경제 이점 타일을 점령하면 보상도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수는 두 번째 내각 카드로 #내각-10 에드먼드 핼리를 선택합니다. 지수는 부가 군사 행동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렴하게 함대를 건조할 수 있음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 북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에 영국 해군 부대를 구축하면 지역 및 상품 보상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시장을 보호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사건 카드를 모두 플레이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핼리의 능력인 사건 카드 1장을 1 조약 점수로 변환하는 것 또한 유용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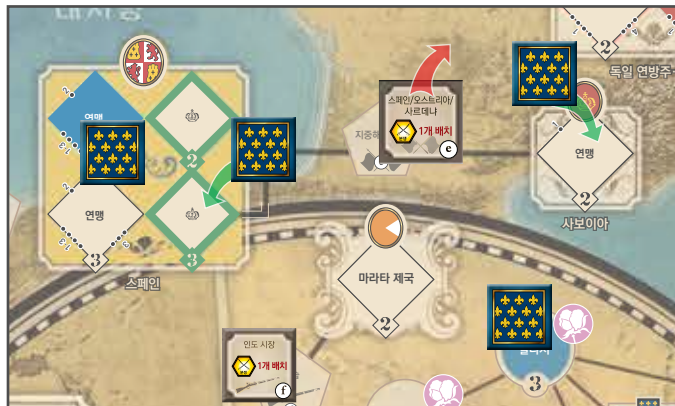


각자 내각 카드 선택을 마치고, 이제 연우(우선권 플레이어)가 누가 먼저 플레이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플레이 하면 투자 트랙에서 단 하나뿐인 주요 군사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확정적으로 2개의

이제 연우는 투자 타일에 표시된 행동들(3 의 주요 외교 행동, 2 의 부가 군사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연우는 추기경 총리 대신의 효과를 강화할 목적으로 3 을 사용해서 스페인의 비용 3의 위신 칸에 프랑스 국기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2 부채를 실행하고, 2 을 사용해서 사보이아에 프랑스 국기를 추가로 배치합니다.



이제 연우는 지중해의 음모 이점 타일과 연결된 모든 칸을 점령하고 있으므로, 그 이점 타일을 가져와 자신의 플레이어 매트의 이점 공간에 그 이점 타일을 놓습니다. 연우는 다음 행동 라운드에서 그 이점 타일을 사용하여 스페인, 오스트리아, 사르데냐 중 한 곳에 분쟁 마커 1개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지수가 지중해의 음모와 연결된 칸의 점령 상황을 바꾸지만 않는다며 말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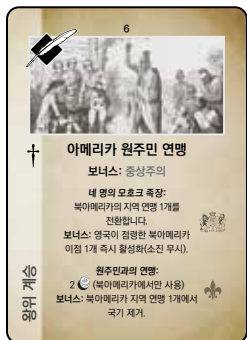


이제 연우는 부가 군사 행동으로, 2 ♣에 1 부채를 더해 루이스버그 요새에 투자를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가 가용 부채를 낮춤으로서 야기되는 위험한 사건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연우는 이번 턴의 루이스버그가 아주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루이스버그에서 모든 수산물 시장 세 곳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수산물은 이번 세계 수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의 첫 행동 라운드를 마칩니다.

지수는 다음의 투자 타일을 선택합니다:



이 타일에는 군사력 향상 기호가 있습니다. 이번 턴에 군사력 향상 기호가 있는 유일한 타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지수는 손에서 아메리카 원주민 연맹을 플레이 합니다.



지수는 영국 동인도 회사 내각 카드를 공개하고 중상주의 키워드를 획득합니다. 네 명의 모호크 족장 기본 효과로 북아메리카의 지역 연맹 1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알곤퀸 족 연맹에서 프랑스 국기를 제거할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사건 카드의 보너스 효과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밀 이적 타일을 사용하려면 ☺ 이 필요한데, 이번 라

온드에는 경제 행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대신 이로쿼이 족 연맹을 전환합니다. 그 칸에 영국 국기를 놓고 이로쿼이 족의 침략 이점 타일을 가져옵니다. 이제 북아메리카에서 점령한 이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건의 보너스 효과를 사용해서 즉시 그 이점 타일을 활성화하고(방금 획득한 이점 타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 카드에서 언급한 “즉시”라는 지시는, ‘이점 타일을 획득한 라운드와 동일한 라운드에는 해당 이점 타일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규칙에 우선합니다), 분쟁 마커 1개를 올리기에 배치합니다(향후 해당 지역 변경 비용을 감소시킵니다). 이 사건 카드에는 소진을 무시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로쿼이 족의 침략 이점 타일에 소진 마커를 올려 놓지 않습니다.



이제, 지수는 투자 타일에 있는 군사력 향상을 사용합니다. 지수는 “앤 여왕 전쟁” 전장에 있는 타일을 교체하기로 하고 기본 전쟁 타일 1개를 뽑았더니 “+2” 타일이 나와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그 타일을 앤 여왕 전쟁에 놓습니다. 지수는 원래 있었던 “0” 군사력의 전쟁 타일을 게임에서 제거합니다.

지수가 이런 추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외교 주요 행동 점수(2점)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수는 사르데냐에 외교적 접근을 시도하기로 하고, 영국 국기를 사르데냐에 배치합니다. 지수는 부가 군사 행동으로 1  을 사용해서 해군 구역에 있는 자신의 함대 1개를 발레아레스 해상 칸에 배치합니다. 아쉽지만 남은 1  는 버려집니다. 부가 행동으로는 1번의 행동 구입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지수는 헬리의 두 번째 능력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카나티 전쟁 카드를 버리고, 공용 기록 트랙에서 자신의 조약 점수 마커를 '1'로 이동시킵니다. 헬리 카드의 하단 능력에 소진 마커를 올려 놓습니다. 이렇게 영국의 첫 번째 행동 라운드를 종료합니다.

이제 연우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연우에게 남은 사건은 현재 상황에서 그다지 강력하지 않습니다(군비 초과하는 지수가 게임에서 함대나 보너스 전쟁 타일 배치 등의 군사적 자원이 많을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러나 지수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세 개혁을 통해 첫 행동 라운드에서 받은 부채를 상환할 수 있지만, 재정 키워드가 있는 내각 카드가 없어서 보너스 효과를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우가 사건 기호가 있는 마지막 타일을 선택한다면, 지수가 사건을 플레이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수보다 가용 부채가 더 적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주요 군사 행동이 있는 단 하나의 타일을 선택해서 다가올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함과 동시에, 지수가 한 라운드에 함대 모두를 배치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연우는 결국, 가용 부채가 더 적음으로 인해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건 카드가 지수에게 없기를 바라면서, 다음의 투자 타일을 선택합니다:



연우는 1 을 사용해서 해군 구역에 있는 자신의 유일한 함대를 유럽의 비스카이아에 배치합니다. 이를 통해 다가올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에서의 스페인 전장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스카이아는 위신 칸이기도 해서, 이번 턴의 유럽 보상과 위신 보너스에 모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남은 3 과 1 부채를 실행해서 두 번째 함대를 건조하고 해군 구역에 배치합니다. 프랑스의 부채는 이제 4가 됩니다.

연우는 부가 경제 행동으로 2 경제 행동 점수 ()을 사용해서, 수산물 시장이면서 헬리팩스로의 접근도 가능한 조지스 뱅크에 국기를 배치하여 두 번째 프랑스 행동 라운드를 마칩니다. 지수가 이 의도를 저지하지 않는다면, 프랑스는 이 구역에서 두 번째 요새를 건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수산물 경쟁 상황은 1로 동물입니다(지수는 매사추세츠 만을 점령하고 있고, 연우는 조지스 뱅크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눈살을 찌푸립니다. 지수는 사건 기호가 있는 마지막 남은 타일을 가져와서 이자 납부를 플레이 할지 고민해 보지만, 지수에게는 부채가 없기 때문에 보너스 효과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대신, 다음의 투자 타일을 선택해서 카리브 제도에서의 경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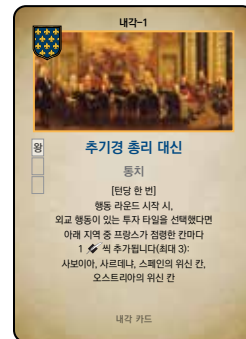
지수는 4 을 사용해서 열대병으로 잃은 조지아와 세인트 루시아에 국기를 배치합니다. 그 다음으로 1 부채와 1 조약 점수를 사용해서 산티아고에 국기를 배치합니다. 이렇게 설탕 시장에서의 상대적인 우위를 점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2 부채를 실행해서 북아메리카의 올버니에 국기를 배치하기로 합니다. 올버니에는 분쟁 마커가 있어서 기본 비용이 1이지만, 지역 변경으로 인해 국기 배치에 추가 1 이 필요합니다(두 번째 지역부터는, 외교 및 경제 비용에 추가 1의 행동 점수가 필요합니다). 올버니에서 분쟁 마커를 제거하고(점령 상황이 변경되면 항상 분쟁 마커를 제거) 영국 국기를 올버니에 배치합니다.

지수는 부가 군사 행동으로 함대 1개를 앤틸리스 해협에 배치합니다. 이로써 연우가 세인트 루시아에서 국기를 제거할 경우 그 비용이 증가합니다. 세인트 루시아는 바베이도스에서 뿔어 나가는 데 있어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이 비용은 1 입니다. 부가 행동으로는 한 번의 행동 구입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는 사라집니다.

연우는 이에 전혀 개의치 않았으나, 마지막 사건의 플레이 여부는 지수에게 맡기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지수가 이전 행동 라운드에서 사건 기호가 있는 타일을 가져가지 않았으니, 지수에게는 부채로 위협하는 사건 카드는 없다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연우의 착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연우는 다음의 투자 타일을 선택하여 유럽에서 외교적 압박을 계속하기로 결심합니다:



연우는 추기경 총리 대신을 공개하고, 최대 보너스인 3 을 획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지수가 경악합니다). 그리고 연우는 그 내각 카드에 소진 마커를 올려 놓습니다.



연우는 이번 행동 라운드에서 무려 7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중해의 음모 이점 타일을 활성화해서 소진 마커를 올려 놓은 뒤, 분쟁 마커 1개를 오스트리아의 영국 국기가 있는 연맹 칸에 배치합니다. 그 다음으로 3 을 사용해서 독일 연방주의 비용 3 칸에서 영국 국기를 제거하고, 이어 3 을 더 사용해서 그 칸에 프랑스 국기를 배치합니다. 이로써 중앙유럽 분쟁 이점 타일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플레이어 매트 위의 이점 공간에 그 이점 타일을 놓습니다. (이번 행동 라운드에 획득했기 때문에 바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후, 자신의 마지막 을 사용해서 오스트리아 연맹 칸에서 영국 국기를 제거합니다. 분쟁 마커로 인해 그 비용이 1 이 됩니다(해당 분쟁 마커 또한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북아메리카에서 지수의 확산세를 늦추기 위해, 알곤퀸 족의 침략 이점 타일을 소진하여 올버니에 분쟁 마커 1개를 배치합니다.

연우는 헬리팩스를 초조하게 바라보았지만, 부채를 더 이상 늘리기는 원치 않았습니다. 대신, 부가 군사 행동으로 2 을 사용해서 보너스 전쟁 타일을 구입합니다. “드 빌라르: +3” 타일을 뽑아 대박이 터집니다. 연우는 그 타일을 자코바이트 혁명 전장에 놓습니다. 이렇게 1턴의 세 번째 프랑스 행동 라운드가 종료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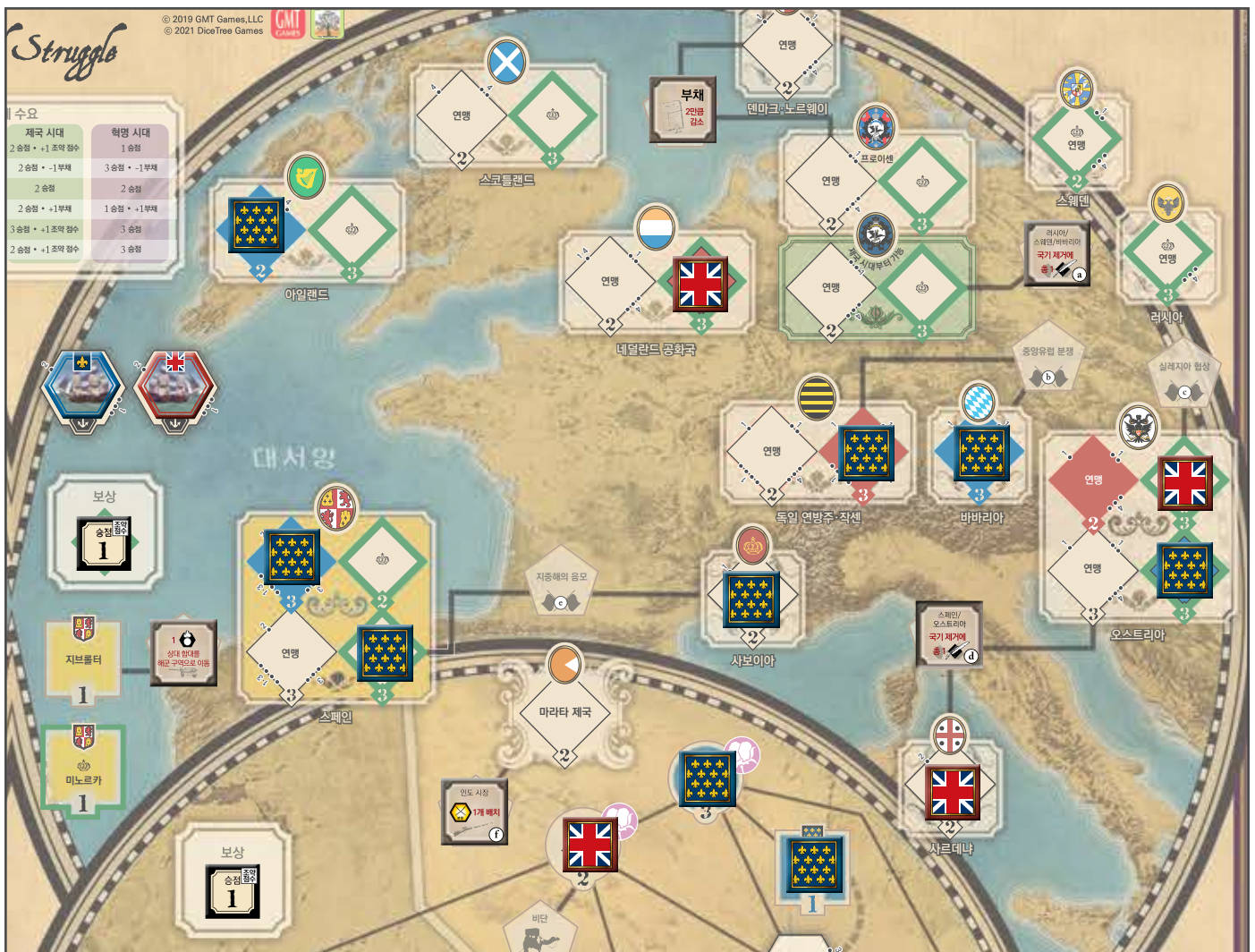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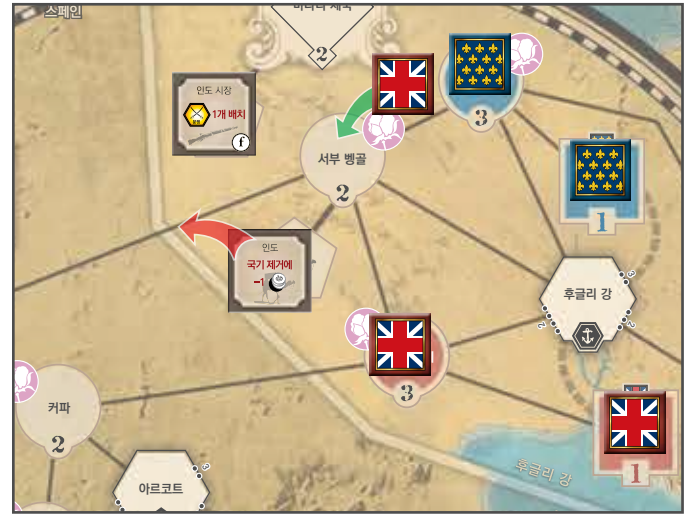
지수는 안정적인 재정 관리에 중요성에 대해 프랑스에게 가르침을 선사할 시간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지수는 다음의 투자 타일을 선택하고, 바로 이자 납부 카드를 플레이 합니다:



연우는 가용 부채가 2, 지수는 가용 부채가 3입니다. 그리하여 보너스 효과가 발동합니다. 연우의 부채 한도가 즉시 1 감소합니다(시작점인 6에서 5로 이동). 연우가 부채 한도에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지수는 승점을 획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연우의 가용 부채는 단 1이 되었습니다. 지수는 보너스 효과로 자신의 부채를 2만큼 감소시켜(1로 이동) 가용 부채가 5가 되었습니다.

지수는 투자 타일의 주요 경제 행동으로, 서부 뱅골 면직물 시장에 국기를 배치하여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로 합니다. 현재 세계 수요에는 면직물이 없지만, 이 국기 배치로 획득한 비단 이점 타일 때문에 인도에서의 경제

적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턴에 영국 동인도 회사로 받을 수 있는 승점이 1 증가합니다. 이번 턴의 인도 보상 역시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지수를 부채를 실행할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세 번째 를 사용하지 않고 주요 행동을 마칩니다.



세 번째 행동 라운드가 종료되고 난 뒤에 상황.

이제 부가 외교 행동이 남았습니다. 지수는 유럽에서의 상황을 반전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프랑스가 유럽에서 8대 3으로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태양왕의 궁정 카드로 인해 유럽 보상에서 보너스 승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연우가 유럽에서 승리한다면, 2 승점 및 1 조약 점수를 받습니다). 추가로 연우는 3개의 위신 칸을 점령하고 있어서, 2개를 점령한 지수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턴 종료까지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연우는 추가 승점 2점을 획득할 것입니다(이전 페이지의 하단 그림을 참고하세요).

그래서 지수는 1 부채를 실행하여(2칸으로 이동), 오스트리아의 비어 있는 위신 칸에 3  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이제 위신 칸의 수는 동물이 되었고, 실레시아 협상 이점 타일도 획득합니다. 이 이점 타일을 활용하면 유럽에서 향후 프랑스의 정치적 이득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행동 라운드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전까지 행동 라운드 한 번씩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연우는 남은 3개의 투자 타일을 살펴봅니다. 지수가 카리브 제도의 상품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경쟁하려면 주요 경제 행동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지수가 최종적으로 행동 라운드를 갖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과 같은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합니다. 한편, 투자 트랙에는 단 하나의 주요 외교 행동만 남아 있습니다. 연우는 이번 턴에 상품 무역에서의 패배를 깔끔히 인정하고 외교 행동 타일을 선택합니다. 이를 통해 강력한 유럽 연합을 구축하여, 스페인과 프랑스 왕권 모두를 차지하려 했던 앙주 공작의 뒤를 이을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먼저, 연우는 중앙유럽 분쟁 이점 타일을 활성화해서 영국 국기가 있는 아르데나에 분쟁 마커를 배치합니다. 지수가 앓는 소리를 냅니다. 투자 트랙에는 남은 군사 행동이 없어서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그 분쟁 마커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연우는 부가 군사 행동의 2  을 사용해서 보너스 전쟁 타일 1개를 구입합니다(투자 타일에 표시된 행동들은, 사건 카드를 반드시 먼저 플레이 해야 한다는 점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원하는 순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연우는 전쟁 타일의 군사력을 최종적으로 파악한 뒤, 세력이 약한 전장에 대해 추가 연맹을 구성할 목적으로 이 행동을 먼저 합니다. 아쉽게도 “다르타냥: +1”을 뽑았습니다. 나쁜 타일은 아니지만 가장 강력한 타일도 아닙니다. 그 보너스 타일을 중앙유럽에 배치합니다.

연우는 4  을 사용해 덴마크-노르웨이와 스웨덴에 국기를 배치하기로 합니다(다시 연우가 위신 보너스에서 앞서 갑니다). 스웨덴 연맹은 다음 전쟁에 기여하지 않지만, 연우는 아마도 의기양양하게 이미 충분한 우위를 점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턴, 프랑스의 마지막 행동 라운드가 끝났습니다.

남은 2개의 투자 타일 모두 동일하므로 지수에게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 중 하나를 가져옵니다.



지수는 주요 경제 행동의 4  으로 수산물 무역 시장을 독점기로 결심합니다. 지수는 3  을 사용해서 조지스 뱅크의 국기를 제거하고(루이스버그 요새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기 제거 비용이 1 증가합니다), 자신의 국기를 배치합니다. 이 과정에서 1 부채를 실행합니다(지수에게는 총 3의 부채가 있습니다). 부가 외교 행동의 2  을 비용 2의 오스트리아 연맹 칸(이전에 연우가 국기를 제거했던 칸)에 사용합니다.

행동 라운드가 종료되었습니다. 4를 초과하는 조약 점수를 가진 플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조약 점수 감소 페이지는 그냥 넘어갑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턴 종료 시” 발동하는 카드도 없기 때문에 해당 페이지도 건너뛰고, 승점 계산 페이지를 진행합니다.

먼저 북아메리카의 승점을 계산합니다. 지수의 국기는 7개, 연우의 국기는 5개이지만, 알곤퀸 족의 침략 이점 타일로 놓은 분쟁 마커 때문에, 올버니의 영국 국기는 승점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승점 보상을 획득하려면 차이가 2개 이상 나야 하므로, 북아메리카의 보상은 아무도 획득하지 못합니다. 이 보상 타일을 한쪽에 앞면으로 놓습니다(방금 계산한 보상 타일은 3턴 전까지는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3턴 시작 시, 다시 모든 보상 타일을 무작위로 섞어 각 지역에 2개씩 배치합니다).

프랑스는 유럽 보상을 획득하고 기본 1 승점에 태양왕의 궁전으로 추가 1 승점을 받고(승점=17), 1 조약 점수도 받습니다(1칸으로 이동). 위신 칸에 대한 보너스 승점 2점도 계산합니다. 프랑스 국기가 있는 위신 칸은 4개(스웨덴, 오스트리아에 1개, 스페인에 1개, 비스카이아 해상 칸)이고, 영국 국기가 있는 위신 칸은 3개(네덜란드 공화국, 발레아레스 해상 칸, 오스트리아에 1개)입니다. 승점 마커를 19칸으로 이동시킵니다.

카리브 제도는 영국이 쉽게 가져갑니다(국기 및 함대가 영국은 7개, 프랑스는 4개). 승점은 받을 수 없지만, 영국은 1 조약 점수를 획득합니다(1칸으로 이동).

인도 역시 영국이 승리하여(국기가 영국이 5개, 프랑스가 4개), 1 승점을 획득하고(승점=18), 1 조약 점수도 받습니다(총 2 조약 점수 보유).

그 다음으로 세계 수요에 대한 승점을 계산합니다. 영국이 3개의 보상을 모두 획득합니다. 수산물(영국 2개, 프랑스 0개) / 설탕(영국 2개, 프랑스 1개) / 담배(영국 1개, 프랑스 0개). 이를 통해 영국이 7 승점을 획득하지만, 영국의 부채 역시 2만큼 증가합니다(승점=11, 영국 부채=5). 여기에 지수는 비단 이점 타일을 보유하고 있어서 영국 동인도 회사로 인해 총 8 승점을 획득합니다(!). 최종적으로 승점 마커는 10칸에 위치합니다.

최종 승점이 0이나 30점이 아니므로, 승리 확인 페이지는 아무런 결과 없이 끝납니다. 그러나 만약 영국이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승리해서 보상을 획득했다면 승점 계산 페이지에서 영국의 자동 승리로 게임이 끝났을 것입니다! (자동 승리 조건 중 하나는, 한 턴에 모든 4개의 지역과 세계 수요의 모든 상품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아서 게임을 계속 진행합니다. 이제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발발합니다.



두 사람은 다음과 같이 전쟁 타일을 공개합니다: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1. 중앙유럽

지역: 유럽

타일: +1 (프랑스 왕실), 0 (부채), +1 (다르타냥)

보너스 군사력: 오스트리아, 바바리아, 덴마크-노르웨이, 네덜란드 공화국, 독일 연방주, 사보이아

승차	승리 보상	패배 보상
1-2	2 승점	1 조약 점수
3-4	2 승점 + 1 정복 점수	2 조약 점수
5+	3 승점 + 2 정복 점수	3 조약 점수

추가 정복 가능 영지: 산 아구스틴, 아시엔토, 허드슨 만, 아카디아

2. 스페인

지역: 유럽

타일: +1 (전쟁 타일), +1 (전쟁 타일)

보너스 군사력: 동치, 사르데냐, 스페인 함대

승차	승리 보상	패배 보상
1	1 승점	1 조약 점수
2-3	1 승점 + 1 정복 점수	2 조약 점수
4+	1 승점 + 2 정복 점수	2 조약 점수

추가 정복 가능 영지: 산 아구스틴, 아시엔토

3. 앤 여왕 전쟁

지역: 북아메리카

타일: +2 (전쟁 타일), +2 (전쟁 타일)

보너스 군사력: 분쟁 마커, 요새, 함대

승차	승리 보상	패배 보상
1-2	1 승점	-
3	1 승점 + 1 정복 점수	1 조약 점수
4+	1 승점 + 북아메리카 시장 1개에서 국기 제거 + 1 정복 점수	2 조약 점수

4. 자코바이트 혁명

지역: 유럽

타일: +2 (전쟁 타일), -1 (전쟁 타일), X (전쟁 타일)

보너스 군사력: 양식, 네덜란드 공화국,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분쟁 마커

승차	승리 보상	패배 보상
1-2	1 승점	-
3-4	2 승점	1 조약 점수
5+	4 승점	2 조약 점수

특수 규칙: 프랑스가 3이상 차이로 승리할 경우, 던 트래크에 자코바이트 승리 마커 1개를 놓습니다.

© 2020 GMT Games LLC • www.GMTGames.com • © 2021 Dice Tree Games • www.DiceTreeGames.com

지수가 당황합니다. 지수는 1턴에서 경제적 우위를 매우 확고히 다졌지만, 전장에서는 완벽히 상대에게 압도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장은 중앙유럽입니다. 영국은 프랑스의 “영국 부채 +1/0” 타일로 인해 즉시 부채 1을 받습니다. 이제 지수는 부채 한도에 있습니다. 지수는 다른 전장에서 추가 군비 지출이 없기를 바랍니다. 중앙유럽에서의 군사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프랑스:

- 타일에서 +2
- 연맹 칸에서 +4 (바바리아, 독일 연방주, 사보이아, 덴마크-노르웨이)
- 총 군사력: 6

영국:

- 타일에서 +1
- 연맹 칸에서 +1 (오스트리아)
- 총 군사력: 2

프랑스가 중앙유럽 전장에서 4의 차이로 승리합니다. 프랑스는 2 승점(승점=12)과 1 정복 점수를 받습니다. 연우는 과일 이점 타일을 제공하는 산 아구스틴에 정복 점수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과일 이점 타일은 카리브 제도에서의 기세를 회복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수는 2 조약 점수를 받습니다(총 4 조약 점수 보유).

스페인 전장에서의 군사력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

- 타일에서 +1
- 비스카야의 함대에서 +1
- 통치 키워드에서 +1
- 연맹 칸에서 +1 (스페인)
- 총 군사력: 4

영국:

- 타일에서 +1
- 발레아레스의 함대에서 +1
- 사르데냐에 분쟁 마커가 놓여 있으므로, 해당 영국 연맹은 군사력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 총 군사력: 2

프랑스가 스페인 전장에서도 2 차이로 승리합니다. 연우는 1 승점(승점=13)과, 1 정복 점수를 획득하고, 지수는 2 조약 점수를 획득합니다(총 6 조약 점수 보유), 연우는 지브롤터에 정복 점수를 사용해서 해상 보루 이점 타일을 획득합니다.

앤 여왕 전쟁(북아메리카 전장)의 군사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

- 타일에서 +2
- 루이스버그에서 +1
- 영국 국기가 있는 올버니의 분쟁 마커에서 +1
- 총 군사력: 4

영국:

- 타일에서 +2
- 총 군사력: 2

프랑스가 2 차이로 앤 여왕 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연우는 1 승점을 획득했지만(승점=14), 추가로 영토적 이득을 얻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전 행동 페이즈에서 지수가 군사력 향상을 했기 때문에 프랑스의 무력 시위를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코바이트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프랑스:

- 타일에서 +2 (그리고 유럽에서 영국 국기 1개를 제거해야 합니다. 연우는 네덜란드 공화국 국기를 선택합니다.)
- 연맹 칸에서 +1 (아일랜드... 하지만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양식 키워드에서 +1 (아, 자코바이트는 너무나 낭만적이었습니다!)
- 영국 국기가 있는 사르데냐의 분쟁 마커에서 +1
- 총 군사력: 5

영국:

- 타일에서 -1 (이 타일의 추가 효과로 지수는 아일랜드에 있는 연우의 국기를 제거하기로 합니다. 그러므로 아일랜드는 이번 전장에서 프랑스 군사력에 기여할 수 없습니다.)
- 총 군사력: -1

아일랜드 연맹 칸에서 국기를 제거했기 때문에 프랑스의 총 군사력을 4로 조정했으나, 프랑스는 1715년 자코바이트 혁명에서 5 차이로 승리를 거둡니다. 프랑스는 4 승점을 획득합니다(승점=18). 영국은 2 조약 점수를 받습니다(총 8 조약 점수 보유). 또한 연우는 턴 트랙에 자코바이트 승리 마커를 놓습니다. 이 마커를 통해 #내각-4 자코바이트의 난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번 전쟁의 4개의 모든 전장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자동 승리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자동 승리를 하려면 4개의 모든 전장에서 최대 차이로 승리를 거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리 확인 페이지에서는 누구도 승리하지 않습니다(사실, 게임 시작과 비교하면 프랑스가 단지 3점을 앞서고 있을 뿐입니다. 프랑스의 군사적 승리가 영국의 상업 지배력을 약간 능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재정절 페이지를 진행합니다. 모든 기본 전쟁 타일을 각자의 플레이어 매트로 되돌리고(지수가 군사력 향상으로 게임에서 제거한 기본 전쟁 타일은 제외),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의 보너스 전쟁 타일을 게임에서 제거합니다.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의 보너스 전쟁 타일을 각자의 플레이어 매트의 해당 칸에 추가합니다. 올버니와 사르데냐의 분쟁 마커를 제거합니다.

이어진 전쟁 준비 페이지에서,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현황판을 게임 상자로 되돌리고 다음 전쟁인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을 준비합니다. 게임 보드 옆에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현황판을 놓고, 각자 플레이어 매트에서 기본 전쟁 타일을 4개씩 뽑아 새로운 전쟁의 전장마다 1개씩 뒤집어 놓습니다. 이제 플레이어들은 왕위 계승 시대의 후반부인 2턴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설정 도움말: 영국은 지역 보상과 세계 수요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또한 다음 턴에 사용할 수 있는 조약 점수 역시 많이 비축해 두었죠. 다음 턴에 지수는 대단한 변화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턴에서도 두 번째로 플레이 하는 것에 대한 유혹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프랑스는 정복을 통해 지도 상에서의 존재감을 키웠고, 영국이 이에 맞서는 그다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우는 유럽에서 강력한 정치적 이점도 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누군가가 진행한 게임이었습니다. 이 예시를 따라하며 플레이를 했다면 이어서 게임을 플레이 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새로운 게임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기에 대한 이야기

18세기 프랑스와 영국 모두에서 군 및 민간 기관이 부흥기를 맞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와 현대 시대를 잇는 이 과도기에서, 군대와 기업은 현대 국가로서의 규모와 공식성을 갖추기 시작했지만 이전 시대에 대한 개인화된 취향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1707년, 영국은 성 조지의 십자가와 성 앤드류의 X자형 십자가를 통합하며 통일된 왕좌를 형상화했고, 이는 영국 국기 사상 최고의 진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801년까지도 성 패트릭의 X자형 십자가가 추가되지 않았지만, 그 해에 마침내 아일랜드가 편입되면서 영국을 연합 왕국이라 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국의 투쟁에서는 점령 마커와 함대(영국 함기를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를 나타내기 위해 1707년 영국 국기를 사용합니다. 흰색이 많으면 플레이어의 가독성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대영제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전세계에 휘날렸던 영국 동인도 회사 국기는, 1777년 이전에 미국이 잠깐 사용했던 그랜드 유니온 국기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1777년부터 그랜드 유니온 국기의 유니온 십자가는 파란색 바탕에 13개의 별이 그려진 그림으로 변경됩니다.

프랑스의 국기에는 더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부르봉의 군 깃발은 완벽한 하얀색이었습니다. 당시 군대가 항복을 나타내는 방식은 적국을 상징하는 색깔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프랑스에 항복해서 백기를 흔들었죠. 왕실이 존재했을 때만 국기를 황금 플뢰르 드 리스(백합)로도 장식했는데, 이런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연유 및 게임에서의 가독성을 생각해 봤을 때, 지도 상에서 칸 점령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할 프랑스 국기로서, 우리는 플뢰르 드 리스로 장식된 파란색 카페 왕조 국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국기나, 혹은 특히 더 돋보이는 3개의 황금 플뢰르 드 리스를 활용한 형태의 국기를 군대에서 사용한 전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퐁트누아 전투, 1745년: 프랑스 군과 연합군의 대치, 앙리 펠릭스 엠마뉘엘 필리포토, 1873년 작, 게임 설명서 20 페이지 참고).

이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동인도 회사의 국기 역시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 시대의 프랑스 국기는 오늘날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찾을 수 있는 대부분의 이미지는 19세기 및 20세기에 걸친 예술가들의 해석의 결과로만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국기의 세세한 부분은 동인도 회사의 현장으로 남아 있었고,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과 가장 부합하다고 생각한 해석을 선택했습니다. 프랑스의 함기는 영국의 함기보다 더 복잡하면서도 정교하게 디자인되었으나, 태양왕의 정신과 영광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제국의 투쟁을 플레이 하면서, 육지와 해상 모두에서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 두 강대한 경쟁국이 선택했던 방식을 계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 게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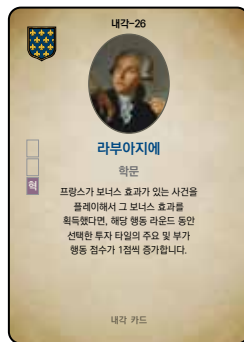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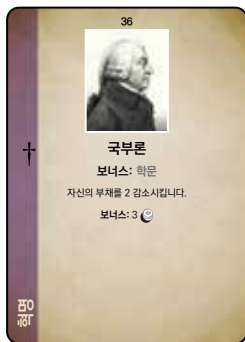
복잡한 행동 라운드

이 예시에서는 행동 점수 소비에 대한 대부분의 규칙을 담고 있는 1회의 프랑스 행동 라운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시: 6턴입니다.



프랑스를 플레이 하는 진형이는 3 과, 2 부가 군사 행동을 제공하는 투자 타일을 선택합니다.



진형이는 #36 국부론을 플레이 하며, 학문 키워드를 가진 #내각-26 라부아지에를 공개합니다. 먼저 진형이는 국부론의 효과로 자신의 부채를 2 감소시킵니다. 보너스 효과는 3 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선택한 투자 타일의 행동 점수를 사용하기 전에 사건 카드의 효과를 완전히 해결해야 하지만(5.2의 2번 항목 참고), 추가로 획득한 행동 점수는 예외입니다. 플레이어가 원하는 순서대로 투자 타일의 행동 점수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형이는 3 , 4 , 3 을 보유합니다. 외교 행동 점수와 군사 행동 점수의 경우에는 라부아지에의 효과로 인해 투자 타일의 기본 수치에 1씩 더해진 결과입니다. 진형이는 먼저 카리브 제도에 집중할 생각으로 를 먼저 사용하기로 하고, 그중 군사 행동 점수 2점을 사용해 포르투프랑스에 있는 분쟁 마커를 제거합니다. 부가 행동으로는 한 번의 행동 구입만 할 수 있으므로 남은 군사 행동 점수는 버려집니다. 이제 진형이는 푸에르토리코와 인접한 시장을 차지합니다. 푸에르토리코의 고립되어 있는 영국 국기를 단 1 로 제거합니다 (5.4.2 참고). (진형이가 이번 행동 라운드를 시작할 때, 푸에르토리코와 인접한 포르투프랑스에 이미 국기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그리고 이제 분쟁 마커도 없습니다), 5.4.1의 규칙에도 부합하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진형이는 나포 면허장 이점 타일을 활성화하고, 서부 바하마 룬에 분쟁 마커를 배치합니다. (영국 국기가 있는 칸이므로 보호 칸이 아닙니다. 프랑스 함대는 해적으로부터 영국 국기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 행동을 통해 다음 행동 라운드 시작 시, 북부 바하마 룬에 있는 영국 국기 역시 고립될 예정입니다(새로운 행동 라운드 시작 시까지는 고립되지 않습니다. 5.4.1 참고). 그러나 진형이는 아직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1 을 사용해서 서부 바하마 룬의 국기를 제거합니다(분쟁 마커로 인해 비용이 감소되었습니다. 5.4.2 참고). 점령 상황의 변화로 인해 이 분쟁 마

커를 제거합니다. 부채 1을 실행해서(고마워요, 아담 스미스!) 1  이 추가되었고, 남은 1  과 함께 사용해서 서부 바하마 룬에 자신의 국기를 배치합니다. 진형이가 지도를 살펴보니 자신의 입지를 꽤 강화시킨 것 같았지만(국기 1개를 고립시킴으로써, 적어도 영국으로 하여금 이에 응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카리브 제도에서 4  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행동 점수를 모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형이는 이미 나포 면허장을 점령하고 있고, 해적의 안식처는 비용이 2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형이는 지역을 유럽으로 변경합니다. 2  을 사용해서 스웨덴에 국기를 배치하고, 나머지 2  로 비용 2의 스페인 위신 칸에 국기를 배치합니다. 진형이는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5.3.4 참고)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피해 받은 요새 예시



프랑스를 플레이 하는 동진이는 4  와 2  를 제공하는 투자 타일을 선택합니다. 이번 턴에 수산물이 세계 수요에 포함되어 있어서 동진이는 북아메리카에서 기회를 엿봅니다. 영국이 이전 턴에 루이스버그를 점령했지만, 동진이가 조지 왕 전쟁에서 전쟁 타일로 루이스버그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동진이는 자신의 4  모두를 사용해 루이스버그의 국기를 제거합니다. 기본 비용 3(지도 상에 표시된 루이스버그 칸의 수치)에 비용 1이 추가된 결과입니다(상대의 피해 받은 요새를 복구하여 함락시키는 비용에는 추가 1  이 필요합니다. 5.6.4의 두 번째 항목 참고). 아카디아의 프랑스 국기는 루이스버그 요새의 복구 목적으로 인접 조건을 제공하지 않지만, 캐벳 해협에 있는 동진이의 함대가 루이스버그와 인접해 있습니다. 동진이는 루이스버그에 있는 영국 국기와 요새 피해 마커를 모두 제거하고, 자신의 국기를 배치합니다. 그 다음으로 동진이는 2  의 부가 행동을 사용해서 조지스 뱅크에 국기를 배치합니다. 루이스버그를 점령함으로써 이제 그 칸과 인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동진이는 이러한 방법으로 부가 행동을 사용해서 수산물 보유 상황을 강화할 수 있었고, 그 비용 또한 저렴했습니다(부가 행동으로는 노스이스트 수로에서 국기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는 행동 라운드 시작 시 루이스버그 요새가 인접해 있지 않아도 가능한 행동입니다. 다른 시장일 경우에만 인접 조건 제공 여부에 그러한 요건이 필요합니다(5.4.1의 두 번째 설정 도움말 참고)



카드 드리븐 플레이어들을 위한 지침

제국의 투쟁에서는 카드 드리븐 게임 마니아들에게 익숙한 일부 규칙과 메커니즘을 변형했습니다. 카드 드리븐 게임 플레이어들을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작성했습니다:

- 제국의 투쟁에서 사건으로 플레이 한 사건 카드는 항상 게임에서 제거합니다. 이것은 황혼의 투쟁을 포함한 대부분의 카드 드리븐 게임에 반하는 규칙입니다. 일반적인 카드 드리븐 게임의 경우, 일회성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별표나 기타 기호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 사건을 게임에서 제거했습니다.
- 혁명 시대를 시작할 때, 카드 덱 및 플레이어의 손에 있는 카드를 포함해서, 모든 왕위 계승 시대 카드를 게임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물론, 5턴의 카드 덱 페이즈에 즉시 왕위 계승 시대 카드를 제거하지 않고, 이후에 왕위 계승 시대 카드를 뽑으면 그 카드를 버리고 다시 카드를 뽑는 방법도 있습니다.)
- 사건 기호가 있는 투자 타일을 사용하면 그 타일에서 제공하는 행동 점수에 더해 사건도 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카드 드리븐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그런 카드를 행동 점수(혹은 작전 점수, 지휘 점수 등등)로 사용할지 사건으로 플레이 할지를 깊이 고민해야 했습니다.
- 제국의 투쟁에서도 플레이 순서는 고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총 승점으로 우선권이 결정됩니다. 우선권을 가진 플레이어는 먼저 플레이 할 필요는 없으며, 누가 먼저 플레이 할지 결정합니다.
- , , , 이렇게 세 종류의 행동 점수가 있으며 각각 게임에서의 사용 방법과 역할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카드 드리븐 게임에서는 한 종류의 행동 점수가 있고, 그 행동 점수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하나의 목록으로 제시됩니다.
- 칸의 연쇄적 점령이 황혼의 투쟁이나 기타 다른 게임보다 더 많은 경우에서 가능합니다. 이번 행동 라운드에 새롭게 인접한 시장에는 일반적으로 국기를 배치할 수 없지만, 이번 행동 라운드에 국기를 배치한 칸이 요새나 해상 칸이라면 그와 새롭게 인접한 시장에는 국기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

왕위 계승 시대: 사건 카드 및 내각 카드

사건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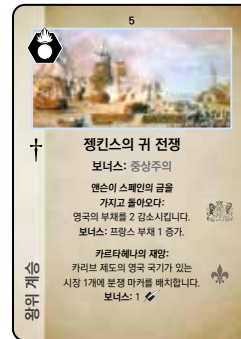
#1 카나틱 전쟁: 프랑스와 영국 모두, 무굴 황손과 동인도의 다른 통치자들(특히 하에데바라드의 니잡 왕조) 사이에서 음모와 갈등에 휘말리거나, 갈등을 조장하였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이러한 갈등이 지속되자 전쟁이 발발했고, 이 전쟁으로 유럽 국가들은 영토적, 경제적 이익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설정 도움말: 일부 다른 사건 카드(예를 들어, 쟁킨스의 귀 전쟁)와 마찬가지로, 제국 시대의 상징적인 카나틱 전쟁은 제국 시대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카드는 왕위 계승 시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전쟁의 시작 자체가 생각보다 더 일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같이 더 광범위한 분쟁의 시작점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규모가 큰 분쟁에 앞서 카나틱 전쟁을 경험함으로써, 플레이어들로 하여금 이 게임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의도하였습니다.

#2 1707년 연합법: 1707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왕자가 연합한 사건은 영국 정치 역사상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한 명의 군주가 두 왕국을 통치하는 동군 연합 상태였지만, 스코틀랜드가 그 정책에 대항하여 뭉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영국 정부의 주요 목표였고, 이는 각 국가의 수장은 항상 한 명의 개인이어야 한다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자체적으로 연합에 완강히 반대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재정적인 상황 때문에 스코틀랜드의 대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최초의 연합법을 비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는 수십 년 동안 자코바이트를 지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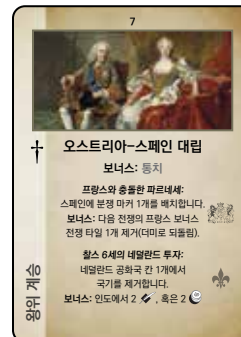
#3 열대병: 해상이든 육지든, 서인도 제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질병이었습니다. 벌레 등의 기생충을 먹는 사람들은 끊이지 않는 질병의 매개체였습니다(과거나 현재나). 신세계의 나머지 지역과 마찬가지로, 원주민들도 새로이 유입된 유럽 질병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대서양을 가로질러 건너온 아프리카 노예들을 통해 아프리카가 근원지인 새로운 열대성 질병이 퍼져 나갔고, 유럽인과 카리브 제도 원주민들 모두 그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노예 몸값이 비싸졌고, 노예 무역의 성장을 더욱 촉진시켰습니다.

#4 남해 투기: 남해 회사(남태평양이 아닌 남아메리카와의 교역권 때문에 이렇게 부릅니다)는 영국 정부로 하여금 정부 부채를 떠안도록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은행은 그런 기반을 갖춘 유일한 기관이었습니다. 프랑스와의 전쟁이 종료되자, 남해 회사의 이사들은 남아메리카와의 무역을 통한 잠재적 이익을 주장하며 투기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또한, 프랑스 왕립 은행에서 존 로의 성공 가도와 경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투자를 통한 이익은 가망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자 주가가 폭락했고, 수천 명의 투자자들이 망했습니다. 이때, 로버트 월폴이 능숙한 위기 수습 능력을 보여 상당한 명성을 쌓았습니다. 비록 여전히 만연한 불행과 실패가 월폴을 따랐지만 말입니다.



#5 쟁킨스의 귀 전쟁: 스페인 호위함이 로버트 쟁킨스의 함선을 나포한 후, 영국 해군 장교인 쟁킨스의 “귀”를 잘라 촉발된 것으로 알려진 ‘쟁킨스의 귀 전쟁’은, 카리브 제도의 스페인 소유지에 진출하기 위한 남해 회사와 영국 정부의 권력 놀이를 상징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영국 군사령관인 조지 앤슨의 원정인데, 이 원정에서 조지 앤슨은 카리브 제도에 혼란을 일으켰다는 명목으로 기소되었고, 결국 태평양으로 강제 송환되어 중국으로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필리핀에서 거대한 스페인 보물선을 나포함으로써 기나긴 항해를 만회할 수 있었고, 희망봉을 돌아 영국으로 회항하여 세계를 일주했습니다.

#6 아메리카 원주민 연맹: 영국과 프랑스 양국은, 오랜 부족 간의 다툼을 이용해서 부족들의 지지를 얻었고, 조약 및 경제 교류를 통해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광범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프랑스는 특히 종교적 개종이라는 압박을 통해 결과적으로 더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였으나, 양측 모두 모든 북아메리카 분쟁에서 원주민 경찰인, 안내자, 침략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 오스트리아-스페인 대립: 이 두 나라는 무역, 영토, 항만시설 사용권, 유럽 관계 등 가능한 거의 모든 이슈를 놓고 끊임없이 대립했습니다. 양 국가는 자국의 왕위 아래 통일된 통치를 원했습니다. 비록 그 욕망은 세월이 흐를수록 점차 흐릿해졌지만 말입니다. 이를 목적으로, 양국은 종종 프랑스, 영국과 거래를 하거나 전투를 벌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찰스 6세는 네덜란드와의 무역 기회를 공격적으로 이끌었고 그로 인해 찰스 6세는 영국에 대한 협상권을 얻었습니다. 또한 이사벨라 파르네세세의 오를레앙 섭정에 대한 음모로 인해, 4국 동맹 전쟁 중에 프랑스가 스페인을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8 조세 개혁: 영국과 프랑스, 양국은 모두 수세기 동안 고착화된 조세 회피의 특권과 전통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창의적인 전술과 책략을 사용하여, 18세기 전반에 걸쳐 조세 제도의 단순 명료화를 추구했습니다. 두 왕국이 갈망하던 기반 시설과 군사력 발전을 위해서는 수익 증가 능력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이 영역에서 영국은 점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것이 산업 혁명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9 대북방 전쟁: 발트해를 지배할 주인을 둘러싼 스웨덴과 러시아의 경쟁은 유럽 대륙의 정치판에서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막상 영국과 프랑스 양국은,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에 주의를 돌린 채 대부분의 관심을 그 전쟁에 쏟았지만 말입니다. 영국의 다음 왕인 하노버의 조지 1세 당선자는 러시아 편에 섰습니다. 1709년, 폴타바에서 스웨덴이 패배함으로써 인해 스웨덴의 야망은 발트해 반대편에서 끝나 버렸습니다. 하지만, 1700년대 후반에 미래의 스웨덴 군주들은 다시 그 야망에 도전하게 됩니다.

#10 바티칸 정치: 이전의 두 교황처럼 당시 교황은 18세기 정치에서 중심축이 되지 못했지만, 종교적인 사안들은 여전히 정치판에서의 결정을 흔들며 음모와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호의로운 행동과 사회적 인식을 과시하며 대대적인 지지(혹은 고요한 반대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주요한 사건은 1766년에 하노버 가문과 조지 1세를 영국의 합법적인 통치자로 암묵적 승인한 것으로, 이는 심각한 자코바이트 위협에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교황은 바스티유가 함락되었을 때 그 습격의 반종교주의적 성향을 심각한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11 캘리코 법: 캘리코 법으로 인해 영국으로의 면직물 수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캘리코 법은, 동인도 회사가 뽕에서 추출하는 직물에 대한 양질의 경쟁에 어려움을 겪었던 영국 섬유 공장 소유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수입 제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캘리코 법은 엄청난 밀수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12 군비 초과: 전쟁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며, 18세기 군주 중에 최소 한 명은 파산했습니다(17세기, 16세기에도...). 두 왕국이 이루고자 했던 제국에 대한 군사적 요구는 엄청난데 막대한 재정을 소비했습니다. 18세기 동안 프랑스는 루이스버그 요새에만 무려 4백만 리브르를 투자했습니다. 한편 영국은 대대적인 정부 부채를 떠안음으로써 해군 규모를 두 배로 늘릴 수 있었습니다.

#13 알베로니의 야망: 지올리오 알베로니는 플뢰리와 드부아처럼 유럽 궁정에서 강력한 정치적 관계를 형성한 추기경이었습니다. 알베로니는 스페인 왕실에서 특히 강력한 정치적 관계를 형성했고, 스페인의 펠리페 5세의 왕비인 이사벨라 파르네세에게 신임을 얻었습니다.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은 스페인 왕좌와 프랑스 왕좌를 모두 물려 받을 펠리페의 왕권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알베로니는 수많은 음모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야심 가득한 이사벨라에 대한 봉사로, 알베로니는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중 사보이아, 그리고 오스트리아에게 빼앗긴 스페인 영토를 탈환하려 했습니다. 태양왕이 죽고, 오를레앙 공작이 어린 왕인 루이 15세의 섭정이 되었을 때, 알베로니는 오를레앙 공작을 실각시키고 자신이 섬기던 펠리페 5세로 섭정을 교체하려는, 이른바 첼라마레 음모를 꾸미었습니다. 이 방법이 통했다면, 사실상 알베로니가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의 역사를 바꿨을지도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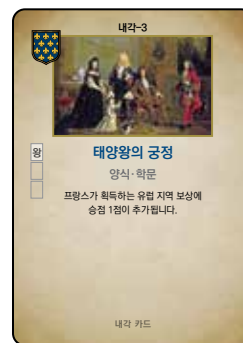
#14 아일랜드 기근: 1740년, 지독한 한파가 아일랜드의 곡물과 감자를 모두 쓸어버렸습니다. 그 후 참혹한 가뭄이 이어져, 남은 식량이었던 농작물을 파괴했습니다. 때아닌 추위로 인해 항구가 혼잡해졌고 부두는 폐쇄되어, 구호 활동마저 방해받았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최종 식량 원조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인구의 약 3분의 1이 굶어 죽었습니다.

#15 이자 납부: 르네상스 시대 동안, 유럽에서는 부채에 대한 이자 납부가 보편화되었습니다. 군주들은 늘어나는 이자의 납부를 피하기 위해 채무 불이행의 유혹을 종종 느꼈으나, 그렇게 할 경우 향후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각 카드:

#내각-1 추기경 총리 대신: 기욤 뒤브와와 앙드레 에르퀼 플뢰리는 프랑스 국왕을 위해 총리로서 종사하는 전통을 이어갔습니다(리슐리외와 마자랭이 시작했던). 두 사람 모두, 유럽 관계의 안정화(영국과의 공식적 동맹을 제안할 정도로!)와 다른 강대국들의 야심을 제한하는 것과, 탄탄한 재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플뢰리는 제국의 투쟁의 두 왕위 계승 전쟁 사이에 지속했던 30년 동안의 평화를 감독했습니다.

#내각-2 존 로: 스코틀랜드의 자연 철학자(지금은 경제학자라고 불리는)인 존 로는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이후 프랑스 재정의 재건을 담당했습니다. 존 로의 재정 재건은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명목 화폐 체계 구축에는 실패했지만, 그 외 다른 개혁들(특히 프랑스의 상업적 사회 기반 시설을 발전시킨 개혁들)로 인해 그의 정치적 후계자들은 어느 정도 재정적 안정을 확고히 이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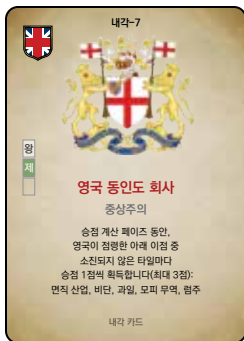


#내각-3 태양왕의 궁정: 베르사유 궁전은, 사냥을 위한 오두막에서 시작되어 극적으로 변모했습니다. 1661년에 루이 14세가 베르사유를 확장하기 시작했고, 1680년대에는 전업 주거 형태를 도입하여 베르사유를 유럽의 보석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루이 14세는 파리의 전통과 방식에 균열을 내고 싶었고, 왕실을 전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되돌리려 했습니다. 유럽 각지에서 온 대사들과 신하들은 베르사유의 호화로운 정원과 숙박 시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내각-4 자코바이트의 난: 명예 혁명을 진압하고 스튜어트 왕조를 영국 왕좌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1715년과 1745년 두 차례의 큰 반란이 가장 잘 알려진 자코바이트 혁명이지만, 사실 자코바이트는 18세기 전 반기의 대부분 동안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은 사건과 음모, 그리고 소규모 봉기의 행렬을 이끌어냈습니다. 자코바이트 세력은, 교황이 하노버 가문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합법적 통치자로 인정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소멸되었습니다. 스튜어트 세력에 대한 가톨릭 지지 붕괴의 결과로 인해, 자코바이트의 야망은 영원히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내각-5 로버트 월폴: 많은 이들이 영국의 진정한 첫 번째 총리로 인정하는 로버트 월폴은 세 명의 군주를 섬겼으며, 까다로운 내각과 영국 의회의 타당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대 피트에 의해 무너진 월폴은 안정성이라는 유산을 남기기도 하였으며, 수십 년 동안 영국을 위한 성공적인 정치 과정을 밟았습니다.

#내각-6 조너선 스위프트: 아일랜드의 수필가 겸 비평가인 스위프트는 걸리버 여행기와 겸손한 제안으로 유명한데, 이 두 작품 모두 상상력이 풍부한 산문에 신랄한 정치적 논평을 결합한 작품입니다. 그는 비록 아일랜드를 지지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의 호감을 사지 못했지만, 영국의 정치적 파벌 양측 모두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내각-7 영국 동인도 회사: 1600년에 공인된 영국 동인도 회사는 인도 및 동인도에 대한 영국의 경제적,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그리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이 성공으로 인해 영국 본토의 정치와 사회에까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부유해진 신흥 무역업자들과 동인도 회사 간부들이 사유지를 구입하고, 명문가의 숙녀와 결혼하고, 영국 의회에 출마했습니다.

#내각-8 잉글랜드 은행: 잉글랜드 은행은 해군 증축의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정부 부채를 용이하게 하려는 수단으로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까지 민간기업이 운영한 이 은행은 새로운 화폐와 지폐를 발행했고(독점 체제로), 대중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기본적인 은행 업무도 처리했습니다. 안정적인 정부 부채 보유 은행으로서, 잉글랜드 은행은 통화 안정성과 일관성을 제공했고, 이를 통해 영국은 프랑스에 비해 상당한 재정적 우위를 서서히 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각-9 신세계의 위그노: 북아메리카에서 영국과 맞서 싸운 프랑스는 모든 전투에서 고질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바로 인구입니다. 범죄자, 연간계약 이주민, 특히 종교적 반대자를 머나먼 식민지로 보내는 영국의 관행은 프랑스에서는 결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루이 14세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충실하지 않은 개신교 신자들의 비판적 집단이 형성될 가능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당연하게도 그 어떤 경우에도 종교적인 불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나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인구 문제를 해결했다면, 캐나다와 아카디아에 있는 프랑스 식민지들은 지역 민병대와 병참에서 영국과 경쟁할 수 있었을 지도 모릅니다.

#내각-10 에드먼드 핼리: 혜성 천문학 총론(핼리 혜성)으로 유명한 에드먼드 핼리는 18세기 영국 왕립 학회에서 가장 명성 높은 인물입니다. 그는 공학(잠수중 개발), 수학(어떤 이들은 보험계리학의 창시자로 여김), 그리고 천문학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시엔토라는 스페인 노예 독점 계약 확보 등, 핼리의 혁신은 향후 2세기 동안 영국 해군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타일의 배경



영국 전쟁 타일



말버러 공작, 존 처칠("앤 여왕의 대장")은 의심할 여지없이 영국의 가장 위대한 군사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기동력, 전술력, 포위술에 능한 그의 기술은 블레넘, 라미에, 오우데나르데에서 중요한 승리를 달성했고, 궁극적으로는 프랑코-스페인이 연합하는 초강대국의 탄생을 막았습니다.

조지 루크 경은 9년 전쟁의 베테랑 해군 장교이자,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시작될 무렵의 함대 제독이었습니다(영국 해군 최고 계급). 그는 비고 만에 있는 스페인 보물선 함대를 과감하게 격파하고 지브롤터에서의 원정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몇 대에 걸쳐 지중해에서의 영국 세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영국 연합 의회: 제국의 투쟁의 두 강대국은 여러 면에서 서로 달랐지만, 가장 주요한 차이를 보인 측면 중 하나가 바로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잉글랜드

왕(그리고 스코틀랜드)은 종종 골치 아픈 의회와 권력을 공유했습니다. 휘그와 토리 사이의 음모가 고조된 상황은 영국 정책에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역으로, 그들 세력이 서로 보완적 관계가 되었을 때 영국은 더 강해졌습니다.

벤자민 처치는 영국 식민지인 플리머스의 군사 지도자입니다. 그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비정규부대로 편입하고, 유럽 군대와 원주민 연합 작전을 성공시킨 최초의 유럽 장교 중 한 명입니다.



사보이아의 외젠 공자("최고의 장군")는 전쟁의 중요한 순간마다 제국주의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북이탈리아, 라인 강 군사 작전, 그리고 저지대 국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블레넘 전투에서 우익을 지휘한 그는, 말버러 공작이 적의 중심부를 돌파하는 데에 기여했습니다. 외젠 공자가 그 전쟁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레오폴트 1세: 이 전쟁이 시작될 때 신성 로마 황제 레오폴트 1세는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는 프랑스와 스페인의 부르봉 왕조 연합에 반하는 유럽의 나머지 세력을 활용하여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이 보유하던 합스부르크 지분을 통합하려 했습니다. 카를 5세가 이 국가들을 자신의 지배 하에 두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레오폴트는 이 대업을 성공시키지 못했고 결국 전쟁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바덴바덴 변경백, 루트비히 발헬름은 1680년대에 외젠 공자와 함께 투르크인과 싸웠습니다. 그는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에서 빌라르에게 패했지만, 블레넘 전투로 돌아와 그 군사 작전의 핵심인 교란 역할을 수행하며 절정을 뽐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위대한 장군으로서 스스로를 증명한 그는, 아쉽게도 외젠의 이름에 가려져 있습니다.

위그노 반란: 루이 14세가 낭트 칙령을 폐지한 사건은, 1702년에 시작되어 전쟁 대부분 동안 지속된 카미사르 반란을 포함, 프랑스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그노 게릴라들은 카톨릭 신자들을 학살하고 왕실 군대에 대항하여 총력전을 펼치며, 프랑스가 남은 전쟁에 쏟아 부어야 할 관심과 노력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데 성공합니다. 한동안 빌라르 마저도 반란군에 대항하여 군을 지휘했는데, 이는 이 반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루비니 후작 겸 고틀로프 백작, 앙리 드 마스는 루이 14세가 낭트 칙령을 폐지했을 때 프랑스 공작을 영원히 사임했습니다. 그는 아일랜드에 정착하여 지위를 받았고, 9년 전쟁과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모두에서 영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사보이아의 변절: 1702년, 사보이아 공작인 비토리오 아메데오는 프랑스를 등지고 대동맹에 편승할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는 프랑스와 스페인이 승리하여 그 연합 왕좌가 지배하는 것을 두려워했으며, 이탈리아 북부의 교착 상태로 인해 레오폴트에게 제안할 수 있는 중요한 협상 카드를 손에 쥔 상태였습니다. 사보이아의 망명으로 인해 중앙유럽에서 프랑스의 전략적인 문제가 분명 복잡해졌습니다.

포상 사냥: 포상 제도는 영국 해군 장교들의 주도성과 공격성을 장려했지만, 한편으로는 전략적 목표에서 멀어지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근위 보병대: 영국의 근위 보병대, 근위 기병대, 근위 척탄병대는 모두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에서 활약했습니다. 영국 군 최고 정예 부대인 이들은 다방면에 걸쳐 전투하며 수훈을 세웠습니다.



프랑스 전쟁 타일



빌라르 후작 겸 공작, 클로드 루이 엑토르 드 빌라르(“프랑스의 구세주”)는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에서 가장 핵심적이자 성공적인 프랑스 군 지도자입니다. 말플라크 전투(1710년)에서 단 8천명의 프랑스 군대로 2만 명이 넘는 연합군 사상자를 냈습니다. 비록 이 전투에서 몇몇 주요 요새들을 빼앗겨서 전술적으로는 패배했으나, 2년 후 빌라르는 드넵 전투에서 승리하여 자신의 군주에게 영광된 평화를 선사했습니다.



방돔 공작, 루이 조제프는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초기에 오스트리아 군에게 가장 많은 좌절을 안겨주었던 지휘관입니다. 그는 사보이아의 외젠 공자를 여러 차례 물리쳤고, 말버러 공작과는 아주 쟁쟁한 호적수임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그는 비야비시오사 전투에서 연합군을 격파하며 스페인에서 가장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결과로 스페인 왕좌에 대한 합스부르크의 집념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부플레르 공작, 루이 프랑수아 드 부플레르는 용맹함과 강인함으로 루이 14세와 영국 모두에게 높은 존경을 받았지만, 긴 복무 기간 동안 항상 성공을 거뒀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정적이었던 말플라크 전투에서 그는, 지휘의 일원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자신보다 하위계급에 있던 빌라르의 휘하로 들어가길 스스로 자청하며 놀랄 만한 겸손함과 판단력을 보였습니다.

프랑스 왕실(메종 뒤 르와)은 루이 14세의 왕실 가문 세력입니다. 그중에서도 군사왕실은 전쟁 내내 매우 훌륭하게 활약했습니다.

카디스의 저항: 루크 제독은 1702년, 영국-네덜란드 전쟁에서 카디스와 마타고르다 요새를 점령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는 군부간 경쟁과, 강건하면서도 창의적인 스페인 수비로 인해 곤욕을 치릅니다. 이는 루크 제독의 몇 안되는 실패 중 하나였습니다.

테세 백작, 르네 드 플뢰레 드 테세는 이번 전쟁에서 가장 운이 없는 프랑스 장군 중 한 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브롤터와 바르셀로나를 포위하기 위해 철저히 계획했으나 실패했던 그는, 마침내 프랑스 남부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프랑스 남부, 툴롱에서 외젠 공자의 진격을 막은 것입니다. 하지만 외젠의 포위 작전이 성공할 경우를 대비하여, 프랑스 해군 함대가 적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함대들을 미리 침몰시켰습니다. 지브롤터가 여전히 영국 수중에 있는 상황에서, 이는 지중해를 노리는 프랑스에게 최후의 일격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릭 공작, 제임스 피츠제임스는 말버러의 조카이자 자코바이트를 주도했습니다. 그는 1688년에 일어난 명예 혁명에서 아버지인 제임스의 편에서 싸우며 태양왕의 휘하로 들어갔습니다.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에서 그는 훌륭하게 싸우며 마침내 1707년, 알만사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는 아무 탈 없이 전쟁을 마치고, 이어진 4국 동맹 전쟁과 폴란드 왕위 계승 전쟁 모두에서 태양왕의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데스트레 공작, 빅토르 모리스 데스트레는 스페인의 펠리페 5세를 위해 앙시칠리아 왕좌를 확보함으로써 군주의 감사를 얻었습니다. 태양왕의 궁극적인 야망이 잘 풀렸다면, 앙시칠리아 왕국은 프랑스 스페인 연합 왕조의 일부분으로 흡수되었을 것입니다.

다르타냥 백작, 피에르 드 몽테스키우는 근위총사이자 말플라크 전투의 영웅입니다. 그의 사촌 샤를이 알렉산드르 뒤마의 작품인 삼총사의 주인공 공 모델이었는데, 이 작품으로 인해 다르타냥이라는 가명이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었습니다.

왕들의 최후의 수단: 루이 14세는 국가 간의 분쟁은 항상 무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말 그대로 “왕들의 최후의 수단”이라는 좌우명을 자국 군대의 포에 새겼습니다.

총사: 하급 귀족이었던 다르타냥이 전설로 거듭나는 알렉산드르 뒤마의 작품, 삼총사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왕실 총사들의 푸른색 타바드는 누구에게나 친숙할 것입니다. 이 머스킷 총을 든 총사들은 귀족들을 위해 복무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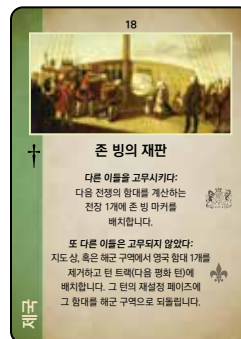
정에 부대: 이 시기에 프랑스 군은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군대였으며, 경험이 많고 자금도 넉넉했습니다. 용기병에서 척탄병, 중포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정에 부대들을 선보였습니다.

제국 시대: 사건 카드 및 내각 카드

사건 카드:

#16 카리브 제도의 노예 소요 사태: 카리브 제도 농장의 노예 생활은 암울했습니다. 질병과 끔찍한 노동 환경, 그리고 끝없는 학대는 “강 하류에서 사람을 팔아 넘긴다”라는 관용구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표현은 미국에서 카리브 제도로 끌려온 노예들의 운명, 그리고 때로는 위협적인 상황을 암시합니다(현재, ‘사람을 배신/홀대하다’는 뜻으로 쓰고 있음). 18세기 동안 마르티니크, 과들루프, 자메이카, 앤티가, 그리고 여타 대부분의 농장이 있는 섬에서 폭동이 일어나, 카리브 제도는 사회적 불안으로 휩싸였습니다.

#17 가족 협약: 합스부르크의 스페인 통치가 끝나고 펠리페 5세(양주 공작 출생)가 왕위를 확보함에 따라, 펠리페 5세는 그의 조카인 루이 15세와 협정을 맺으면서 다른 지중해 영토에 대한 부르봉의 지배권을 확립하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은 오스트리아와의 연맹 관계를 다시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습니다. 오스트리아는 합스부르크가 여러 시대에 걸쳐 통치해 온 영토를 포기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단지 펠리페의 야심 가득한 여왕, 엘레시베타 파르네세의 후손들을 위해 부를 축적하려는 이유에서 말입니다.



#18 존 빙의 재판: 수적으로 우위에 있는 프랑스 지상군(그리고 그에 대등한 해군 역시)와 직면한 존 빙 제독은 결국 미노르카에 군대를 상륙시키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대가는 사형이었습니다. 오늘날 그 군법 재판과 처형 결과를, 존 빙이라는 희생양에 대한 군부의 권력 남용과 촌극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피트는 존 빙에게 관용을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피트의 조지 왕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다른 이들을 일깨우기 위해

(pour encourager les autres)’라는 어구는 볼테르의 특징인 날카로운 풍자적 표현, “이 나라에서는 이따금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제독을 죽이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여긴다”에서 유래합니다.

#19 상류 사회: 18세기에는 양식, 에티켓, 매너의 흐름이 급증했습니다. 비록 루이 14세의 정책으로 많은 위그노 디자이너들과 재봉사들이 런던으로 떠났지만, 프랑스는 의심할 여지없이 패션계의 중심지였습니다. 결국, 영국은 프랑스의 패션 권위에 대해 진지하게 도전을 시도했으나, 19세기, 즉, 보 브루멜의 “댄디즘”이 특히 남성 패션계를 장악하기 시작한 시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영국이 프랑스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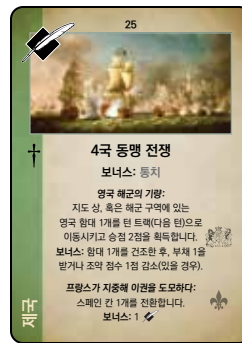
#20 하이데르 알리: 마이소르 왕국의 술탄인 하이데르 알리는, 1760년부터 시작해 1782년 그가 사망할 때까지 자신의 왕국을 지역 강국으로 올려 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북쪽으로는 마라타 제국, 북동쪽으로는 하이데라바드의 니잠, 그리고 유럽 열강들과 경쟁하며, 하이데르 알리는 이 모든 경쟁국으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있었던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능력을 바탕으로, 인도 남부의 가장 실질적인 통치자 중 한 명으로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하이데르 알리는 술탄이 되기 전(스스로 왕좌에 오르기 위해 영국의 도움을 빌렸던 칸데 라오를 무력으로 찬탈하여 술탄이 되었습니다), 인도에서 벌어진 대부분의 중요한 군사 작전에서 주로 프랑스와 동맹을 맺고 마이소르의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21 공행 무역 제도: 이 시기에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 유럽 열강들은 일찍이 중국의 청나라와의 무역에 뛰어들었지만,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청나라와의 무역은 이제 막 걸음마 단계였습니다. 청나라 정부는 중국 연안의 도시에서 무역에 관계하던 상인 조직의 뒤를 잇는 “공행”이라는 제도를 통해 유럽과의 무역을 관리했습니다.

#22 코르시카 위기: 7년 전쟁 이후, 프랑스는 영토 손실을 메우려고 했습니다. 쇼아쉴의 시선은 코르시카에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코르시카의 새로운 정권이 일부 자유주의 때문에 스스로를 점점 더 고립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하여 1768년에 프랑스는 코르시카를 침략했고, 다른 유럽 국가들은 이런 적나라한 침략 행위에 대해 비애를 느꼈으나, 영국 정부는 이 사건의 개입 여부에 대해 주저했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코르시카 정복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고, 영국은 코르시카와 프랑스를 분리하려고 시도했던 프랑스 혁명에서 이 주저했던 실패의 기억을 다시금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3 유럽 경제 공황: 18세기 전반적으로 경제 공황은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그 심각성과 범위는 다양했습니다. 그 원인 역시 수도 없었습니다. 왕실의 자금 압류에 대한 두려움(예를 들어, 1640년 찰스 1세는 단순히 왕립 조폐국의 고객들을 위해 개인 금세공인들이 보유한 모든 금을 압류했습니다), 지폐의 변동성, 주요 기관들이 갑작스럽게 실패하게 된 원인이었던 미완성 보험 시장, 단순한 정부의 부채 관리 실책, 빈번한 전쟁 및 부채 가치 평가절하 등등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상황은 나아졌지만, 오늘날에도 금융 위기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24 서아프리카 금광: 질병과 험지로 인해 “아프리카 분할”은 1800년대 후반으로 미뤄졌지만, 아프리카 서부 해안에는 교역소, 노예 수용소, 그리고 드물기는 하지만 영향력 있는 금광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스페인이 정복한 메소아메리카 문화권으로부터 약탈한 금의 양에는 범접하지 못했지만, 수십 년 동안 서아프리카에서 채굴한 금은 유럽 경제권으로 유입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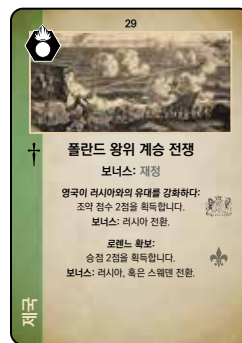


#25 4국 동맹 전쟁: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의 결과를 뒤집으려는 알베로니와 파르네세의 단호한 결의에 대응하여, 그 야망을 억누르고자 마침내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했습니다(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공화국도 함께). 영국은 두 번의 중요한 해전, 케이프 파사로와 비고에서 승리를 거뒀고, 좌절한 펠리페 5세가 알베로니를 왕정에서 실각시킴으로써 프랑스의 숨통이 트였습니다.

#26 헤라클레스의 방: 헤라클레스의 방(혹은 헤라클레스의 살롱)은 베르사유의 가장 인상적인 공간입니다. 거울의 방보다 더 분위기가 있는 이 방은, 1736년에 완공되어 루이 15세에게 있어 중요한 외교적 역할을 했습니다. 화려함, 특히 그 방에 장식된 놀라운 예술성은 프랑스의 막대한 부, 권력, 문화적 영향력을 사절들의 뇌리에 각인시켜주었습니다.

#27 벵골 기근: 1770년의 벵골 기근은 인도 북동부의 영국 지배 하에 있는 영토들을 황폐화시켜 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모든 도시와 작은 왕국들은 굶주렸고, 잇따른 도적 행위와 질병은 비참함을 배가시킬 뿐이었습니다. 이런 가뭄과 홍작이 벵골의 재앙을 촉발시킨 것은 맞지만, 영국 동인도 회사의 근시안적 정책과 추출 정책, 그리고 연달아 벌어진 두 번의 큰 전쟁으로 인한 황폐함이, 상대적으로 가벼울 수도 있었던 사건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말았습니다.

#28 르 루트르 신부: 아카디아(오늘날의 노바스코샤)의 선교사였던 장루이 르 루트르 신부는, 조지 왕 전쟁(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의 일부)에서 영국이 루이스버그를 점령했을 때 자신이 아카디아, 미크맥 등 원주민 연맹의 군사 지도자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뜻밖의 게릴라 지도자가 된 르 루트르 신부는 수년간 영국 항구 및 초소 공격을 지휘했으나, 결국 1752년에 보세주르 요새에서 패했습니다. 그는 승리한 영국인들이 고향에서 추방시킨 아카디아인들을 도와, 캐나다 여딘가에서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29 폴란드 왕위 계승 전쟁: 아우구스트 2세의 죽음으로, 다음의 세 후보자 사이의 폴란드 국왕 승계 경쟁(핏줄이 아닌 선거로 선출하는)을 촉발시켰습니다. 대북방 전쟁 때 스웨덴의 지원으로 승리의 영광을 안았으나 이후 스웨덴이 패하자 도주한 스타니스와프 1세, 사망한 왕의 아들인 아우구스트 3세, 포르투갈 합스부르크 왕자인 인판테 마누엘이 그 후보들입니다. 영국은 이 승계를 좌시했고, 이는 오스트리아와의 동맹 관계를 크게 긴장시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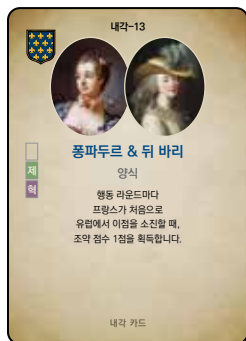
다(그리고 결국 이 방관이 두 왕국의 동맹의 끝을 앞당겼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스타니스와프를 지지한 프랑스는, 합스부르크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과거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에는, 스타니스와프가 아우구스트 3세에게 왕위를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30 조너선 커피하우스: 증권 거래소가 있기 전에는 커피하우스라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상인들과 금융인들이 모여 뉴스, 가십거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가 정보를 교환하고 거래하는, 왓지떨떨하지만 관리의 어려운 시설이었습니다. 조너선 커피하우스는 그러한 최초의 시설이었으며, 최초의 영국 증권 거래소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내각 카드

#내각-11 쇼아쉴: 스탕빌 후작 겸 쇼아쉴 공작, 에티엔 프랑수아는 1758년부터 1770년까지 루이 15세의 수석 장관이었습니다. 주요 보직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소임을 다했던 쇼아쉴이지만, 놀랍게도 그에 대해 알려진 바는 별로 없습니다. 폼파두르 여후작의 강력한 동맹인 쇼아쉴은 해군 군사력과 유럽 연합에서 프랑스의 경쟁력을 재확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폼파두르의 도움으로 재편한 장관들과 함께 그의 야망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 개혁을 제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책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7년 전쟁의 패배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폼파두르가 사망한 후에는 결국 과거의 영광에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내각-12 뒤플렉스: 조제프 프랑수아 뒤플렉스는 인도에 프랑스 제국을 건설하려는 야망이 있었고, 이를 위해 자신의 세월을 쏟았습니다. 그는 열여덟 살의 나이로 바다에 뛰어 들었고, 사업과 정치 분야에서의 능력을 십분 발휘해서 20대 후반에 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 근무하며 인도에 정착했지만, 결국 찬단나가르에 있는 프랑스 무역소의 지휘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군사 문제에 있어서는 공격적이고 역동적인 반면, 안타깝게도 쿠데타와 클라이브의 재능에는 미치지 못해서 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랄리와 마찬가지로 희생양이 되었으나 해고는 면했고, 그의 고향인 프랑스로 돌아와서 빈곤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내각-13 폼파두르 & 뒤 바리: 폼파두르 여후작, 잔앙투아네트 푸아송은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과 7년 전쟁 사이에, 루이 15세의 최고 정부(무려 공식 직함)였습니다. 국왕에게 칭호를 하사 받은 후, 그녀는 요주의 프랑스 예술가들과 과학자들을 지원하면서 왕정의 후원과 정책을 주도했습니다. 어린 왕후로도 알려진 폼파두르의 가장 큰 공헌은, 수많은 막후 실세와 마찬가지로 아마 인재 발굴 분야일 것입니다. 뒤 바리 부인 역시 요주의 왕실 정부

였지만, 그녀는 일반적으로 정치보다는 예술과 사회 관심사에만 몰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부풀려진 소문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으나, 한편으로는 궁정에 광범위하게 행사한 영향력으로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내각-14 볼테르: 프랑수아-마리 아루에라는 본명이 있지만, 전적으로 볼테르라는 필명과 그 풍자 솜씨로 유명합니다. 종교에 대한 강렬한 비판의 입장을 가진 그는(칸디다라는 사상 소설에서, 그는 신의 존재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세상은 최선으로 되어 있다"라는 주장을 조롱합니다), 프랑스 혁명의 가능성에 대해 엇갈린, 그리고 복잡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프랑스 혁명은 군주제와 민주주의, 두 이념 모두에 대한 경멸로 인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각-15 대 피트: 윌리엄 피트("위대한 평민")는 다양한 직책과 직위를 가지고 영국 정부를 이끌었습니다.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대중의 지지가 그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는 비판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그의 주요 업적은 7년 전쟁에서 영국을 이끈 강력한 지도력에서 빛을 발합니다. 비록 국왕과의 사이는 좋지 않았지만(1750년대에 윌리엄 피트가 펼친 반 하노버 주장을 절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윌리엄 피트는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내각-16 찰스 헨베리 윌리엄스: 영국 외교관이자 의회 의원인 찰스 헨베리 윌리엄스는 "재능이 없다고 느꼈다"고 말했던 연설보다는 정치적 시(월풀의 속적들을 가지각색의 우아함으로 받아친 시)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7년 전쟁을 앞두고 그는 베를린, 드레스덴, 비엔나,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담당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이 시기 전후로 벌어졌던 전쟁의 주요 교전 지역입니다. 그의 성과에 대해서는 평이 엇갈리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영국과 러시아가 전면전으로 돌입하는 사태를 막은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각-17 상인 은행: 베어링스 은행이 1762년에 런던에 설립되었지만, 그 몇 년 전부터 통합 수준이 낮은 소규모의 대부업체와 보험회사가 이미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해군 군사력 증강으로 인해 거래가 활발해졌고, 신용 거래, 보험, 투자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습니다.

#내각-18 새뮤얼 존슨: "존슨 박사"는 18세기뿐만 아니라 영국 역사상 가장 출중한 학자이자 문학가입니다. 최초의 사전인 새뮤얼 존슨의 영어 사전을 차치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학자들이 그의 셰익스피어에 대한 수필 및 편찬과 200년 동안의 영국 시인에 대한 전기를 최고의 판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타일의 배경

영국 전쟁 타일

에드워드 보스카웬 제독은 12살의 나이로 영국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는 쟁킨스의 귀 전쟁과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에 참전했고, 존 빙 제독의 처형 집행명령서에 서명한 장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제군들이여, 프랑스 군의 흰자위가 보이기 전까지 절대 사격하지 말라!"

스트링거 로렌스 소령은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초기에 동인도 회사의 군대를 지휘했고, 이어 인도에서의 거의 모든 주요 군사 작전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인도의 초대 총사령관이 되었고, 그의 친구인 로버트 클라이브와 좋은 협력 관계를 보였습니다.

피터 워렌 제독은 카리브 제도와 북아메리카에서 폭넓게 복무했으며, 1745년에 영국 함대를 지휘해서 루이스버그를 공격한 것으로 절정을 맞이합니다.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이후, 그는 미국의 토지 소유권을 포기하고 잉글랜드로 돌아와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폰 로트링겐 공자, 카를 알렉산더는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동안 오스트리아의 군 주요 지휘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1757년 로이텐에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에게 참패했는데, 프리드리히 대왕은 지형에 대

한 지식을 활용하여 수적 열세와 열악한 장비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 군을 기습 공격하여 물리쳤습니다. 그는 후에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의 총독직을 맡아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며 높은 인망을 얻었습니다.

프리드리히 하인리히 폰 쾰렌도르프는 18세기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잉글랜드, 바바리아, 작센, 안스바흐 군대 등 놀랍도록 다양한 부대를 지휘하며, 여러 군대와 국가를 위해 싸웠습니다. 18세기 초기 전쟁 중에 그가 가담하지 않은 전쟁은 대북방 전쟁뿐이었습니다. 1730년대 말, 오스만 족을 상대로 한 군사 작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성공을 거둔 쾰렌도르프는, 제국의 투쟁이 아우르는 시기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군인일 수도 있습니다.

조지 2세는 1727년, 하노버 가문에서 두 번째로 영국과 아일랜드 왕위를 모두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자신의 무용을 뽐냈고, 특히 조지 2세가 영국 군주로서 마지막으로 친히 군을 지휘한 전장(1743년, 데팅겐 전투)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제2대 스테어 백작, 존 달림플은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에 참전했지만, 지휘 계급에 오르지 못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스테어 백작 작위를 수여하면서 비로소 자작 계급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존 달림플은 데팅겐 전투 초반에 영국 군을 이끌어 국왕 곁을 지키면서 엄청난 명성을 떨쳤습니다.

바바리아의 혼란: 1743년에 프랑스-바바리아 연합군의 각 지도자인 드 브로이와 쾰렌도르프 사이에 언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연합은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프랑스-바바리아는 오스트리아 군이 진격할 때도 연합 작전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드 브로이는 바바리아 요새를 차례로 내주었습니다. 프랑스-바바리아 군은 거의 라인 강까지 후퇴하여 결국 데팅겐 전투에서 패했고, 그 결과로 프랑스 군은 독일에서 완전히 축출되었습니다.

바르샤바 조약: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중, 1745년에 체결된 이 조약은 신성 로마 제국에 대한 마리아 테레지아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작센의 4국 동맹을 이끌어 냈습니다. 작센, 러시아 내 연합군, 오스트리아는 프리드리히 대왕의 프로이센을 1713년 이전의 국경으로 되돌리기를 바랐습니다.

헝가리의 열광: 1739년, 프리드리히 대왕이 오스트리아의 실레지아 지방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1741년,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는 막 태어난 아들 요제프 2세를 안고 부다페스트 의회 앞에 서서 헝가리 귀족들에게 라틴어로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이 호소에 고무된 헝가리 사람들은 정규군을 위한 6만 명의 경보병 증원에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갖 결성된 군대는 결국 실레지아를 탈환하고 바바리아를 침공했습니다.

프랑수아 드뷔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에 탄력이 붙자, 프랑스는 찰스 스튜어트 왕자를 잉글랜드 왕좌에 복귀시키기 위해 런던에 기습 공격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선박 담당자이자 두 귀족의 사생아인 프랑수아 드뷔시가 불만을 품고 공격 계획의 세부 정보를 영국에게 2천 파운드에 팔았습니다. 영국은 그 정보에 따라 서둘러 해군 방어 조치를 취했습니다. 결국 1744년 3월, 이러한 방어책과 악천후로 인해 프랑스는 켄티시 해안 침입 계획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로버트 클라이브는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는 조용한 동인도 회사 간부였으나, 지식과 용맹을 겸비한 인재로 급격히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1746년에 동인도 회사의 군대에 합류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영국의 소유권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7년 전쟁에서 그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전쟁 타일



모리스 드 삭스는 18세기의 위대한 장군 중 한 명입니다. 여사들과의 수많은 뒷이야기와, 그 체력과 정력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는 신성 로마 제국, (오스트리아) 제국 군대, 프랑스 군에 복무했습니다(서로 다른 시기에).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중, 1741년에 그는 오스트리아 침공을 위해 파견된 프랑스 군을 지휘했으며, 방어 요새를 조용히 탈환한 프라하 기습 공격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1744년에는 영국을 침공하기 위한 파견 병사들을 지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군대는 항구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하다가 폭풍우를 만나 난파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전쟁학에 대한 자신의 성찰을 담은 논문인 '나의 명상'의 저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 침공을 위해 파견된 프랑스 군을 지휘했으며, 방어 요새를 조용히 탈환한 프라하 기습 공격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1744년에는 영국을 침공하기 위한 파견 병사들을 지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군대는 항구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하다가 폭풍우를 만나 난파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전쟁학에 대한 자신의 성찰을 담은 논문인 '나의 명상'의 저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조지 머레이 경은 스코틀랜드 자코바이트의 장군이었습니다. 1745년, 자코바이트의 난에 그는 찰스 왕자의 명령에 항명하고 후퇴를 명함으로써 찰스 왕자의 분노를 샀습니다. 다음날, 왕자는 군대를 직접 지휘하기로 합니다. 이 공격에 대한 제임스 존스톤의 회고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찰스 왕자가 원정 내내 잠을 잤다면, 그리고 조지 경이 그를 대신해서 행동하도록 위임했다면...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머리에 대영제국의 왕관이 씌어 있지 않았을까."

존 오설리번 대령은 파리와 로마에서 사제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톨릭 신자라는 이유로 부모님의 아일랜드 땅을 물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프랑스로 이민 가서 군대에 입대했고, 1745년에 찰스 왕자와 함께 스코틀랜드를 침공했습니다. 이 군사 작전에서 오설리번의 역할에 대해 역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컬로든 전투에서의 패배에 오설리번이 얼마나 많은 책임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쨌든 그는 찰스 왕자가 영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주었고, 프랑스에서 영웅으로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콩타느 후작, 루이 조르주 에라스메는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에서 활약하여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민덴 전투에서 페르디난트 폰 브라운슈바이크에게 충격적으로 패배한 것으로 더 유명합니다.

니잠의 호의: 하이데라바드의 니잠은 지금은 안드라프라데시라고 불리는 지역의 주요 왕조입니다. 프랑스와 영국 모두 니잠 왕조의 호의를 구했습니다. 1748년에 니잠이 죽은 후, 왕좌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이데라바드는 프랑스 동맹인 무자파 장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759년까지 하이데라바드의 방어를 책임지고 있었던 프랑스 사령관 드 뷔시가 폰테세리소 소환되었습니다(이 시기에 영국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한 드 뷔시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로버트 클라이브가 지휘하는 소규모의 군대가 하이데라바드에 가한 공격이 놀랍게도 성공하자, 니잠은 영국의 지원을 구했습니다.



프로이센의 국왕, 프리드리히 2세(“프리드리히 대왕”)는 그의 군사적 천재성과 더불어, 프로이센을 유럽의 군사 대국으로 만든 것으로 유명합니다. 1745년까지 그는 오스트리아의 실레지아 대부분을 탈환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동안 합스부르크 왕가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프랑스와 공동 전선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의 권력이 이동함에 따라 전쟁의 판도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7년 전쟁에서 프랑스가 예전 동맹국이었던 프로이센의 대륙에 대한 야망을 억제했습니다.

리벤달 백작, 울리히 프리드리히 볼데마르는 독일 태생의 프랑스 장교입니다. 그는 1747년에 네덜란드의 베르헨움프 요새를 포위하여 점령했습니다. 프랑스 군인들은 마을을 잔혹하게 약탈했고, 수천 명의 민간인들을 해치거나 사살했습니다. 많은 유럽인들은 격분했으며 루이 15세는 볼데마르에 대해 “중도는 없다. 그를 교수형에 처하거나 프랑스 원수로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왕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육군 원수, 쿠르트 폰 슈베린은 네덜란드 군대에서 처음 복무했고, 1720년에 프로이센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는 프로이센의 황태자(나중에 프리드리히 대왕으로 알려진)가 탈영을 시도해서 1730년에 열렸던 군사 재판의 구성원 중 한 명입니다. 1741년에 실레지아에서 프로이센 군의 군사 작전을 승리로 이끈 공으로, 프리드리히는 슈베린을 승진시켜 백작 작위를 수여했습니다. 이후에 다른 전투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지만, 1757년에 프라하 공격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쿠아니 백작, 프랑수아 드 프랑퀴토는 육군 원수 발라르의 뒤를 이어 라인의 프랑스 군사령관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는 폴란드 왕위 계승 전쟁 중 1734년에 파르마에서 오스트리아를 격퇴시킨 것,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중 라인에서 프랑스 군의 방어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에 드 라 부르도네는 지금은 모리셔스라 불리는 프랑스 섬의 식민지화를 담당한 비범한 프랑스 선원입니다. 그는 1735년에 그 섬에 도착한 뒤, 북서쪽에 작은 오두막들이 있었던 만을 보고, 그 장소를 수도로서 이상적인 위치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향후 포트루이스로 성장합니다. 그 후, 그는 주지사로서, 기계공, 건축가, 농업 전문가, 그리고 자신이 건설한 병원의 관리자로 일하며 모든 분야에서 활약했습니다. 1741년에는 인도의 마에에서 포위된 프랑스 군을 구했습니다. 이후 영국 군과의 전투에서 풍디세리 주지사인 뒤플렉스를 도우라는 명을 받았으나, 그와 뒤플렉스와 마드라스의 처분과 관련하여 언쟁이 있었고, 뒤플렉스는 라 부르도네를 반역죄로 기소했습니다. 프랑스 섬으로 돌아온 그는 잉글랜드에 붙잡혀 런던으로 후송되어 석방됩니다. 그리고 그는 1748년에 프랑스로 돌아오지만, 바로 체포되어 바스티유에 감금됩니다. 결국 그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1753년에 사망했습니다.

아름다운 찰스 왕자: 찰스 에드워드 스튜어트 왕자는 추방당한 잉글랜드의 왕 제임스 2세의 아들입니다. 1740년에 신성 로마 황제 카를 6세가 사망하자, 스코틀랜드와 프랑스의 가톨릭 신자들과 영국의 개신교인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찰스는 그의 아버지를 따라 왕좌에서 조지 2세를 몰아내기 위한 잉글랜드 침공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1745년에 스코틀랜드에 상륙하여 하이랜더의 지지를 얻어 전투에서 여러 차례 승리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런던으로 진군하려 했으나 결국 스코틀랜드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컬로든 습지에서 패배한 찰스는 난파된 상인과 귀족 부인으로 위장한 채 잉글랜드를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는 결국 프랑스

로 도망쳤습니다. 1748년에 영국이 프랑스와 평화 협정을 맺자, 찰스는 프랑스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의 지지자들은 사라졌고 결국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1788년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7년 전쟁: 타일의 배경



영국 전쟁 타일

존 브래드스트리트는 온타리오 호에 있는 프랑스의 핵심 거점인 프롱트낙 요새에 대한 영국의 공격을 지휘했습니다.

윌리엄 존슨 경은 이로쿼이 사건에 있어 영국의 최고 외교관이었고, 여러 차례 원주민 전사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또한 나이아가라 요새를 함락시키고 이어 애머스트 장군과 함께 몬트리올까지 함락시켰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이로쿼이 족, 영국, 그리고 프랑스 편이었던 부족들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에드워드 호크 제독은 키브롱 만 해전에서 영국 함대를 지휘하여 프랑스 군을 격파해서, 프랑스 해군이 영국 해군보다 우위에 있다는 프랑스의 망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콩플랑의 함대를 만으로 끌어들이는 그의 공격적인 기동은 프랑스 사령관을 놀라게 했고, 결국 프랑스의 침략 위협을 종식시켰습니다.



로버트 클라이브(“인도의 클라이브”)는 18세기 중반의 가장 위대한 장군이자 정치가 중 한 명입니다. 1751년에 그는 카나틱 나와브인 찬다르 알리에 맞서 아르코트를 지켜냈습니다. 이 승리는 알리와 뒤플렉스 그리고 프랑스와의 긴밀한 동맹으로 이어져, 7년 전쟁까지의 디딤돌 역할을 합니다. 그는 1757년, 벵골 지역에 대한 영국의 지배력을 강화시킨 플라시 전투에서의 승리, 그리고 두려움을 모르는 통치 방식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로버트 멍크튼은 북아메리카 군사 작전에서 가장 강인한 장교 중 한 명으로, 노바스코샤부터 본토까지 군사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 평원 전투에 참전했고, 캐나다 전쟁이 끝난 후 애머스트는 그에게 마르티니크를 함락시키라는 명을 내립니다(그리고 그는 함락에 성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는 협상 테이블에서 뉴프랑스의 지배권을 마르티니크와 맞바꾸어 포기했고, 그래서 멍크튼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국을 위해 캐나다를 쟁취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프리 애머스트는 컴벌랜드 공작의 휘하에서 짧은 시간 동안 유럽 전투에 가담했습니다. 1758년 에버크롬비부터 북아메리카에서 지휘를 맡았고, 1760년에 몬트리올을 점령할 때까지 끈질기게 프랑스의 위상을 감아 먹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형편없는 인종”이라고 폄하한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의도적으로 천연두를 퍼뜨린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랜비 후작, 존 매너스는 유럽에서 벌어진 7년 전쟁의 대부분 동안, 영국의 주요 동맹인 페르디난트 폰 브라운슈바이크와 함께 싸웠습니다. 그는 몇 번의 중요한 전투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민덴 전투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크빌의 프랑스 군이 그랜비 기병대의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엄청난 대중적 지지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성공적인 정치 경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제임스 올프는 1759년 아브라함 평원 전투에서 몽칼름 후작에게 승리한 것으로 유명하나, 그 전투에서 두 장군 모두 사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영국이 캐나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일격이 되었습니다.

에어 쿠테 경은 영국 동인도 회사에서 주로 복무했는데, 특히 인도에서 30년간 무굴 왕자, 프랑스의 대리 동맹, 그리고 프랑스와 전투를 벌였습니다(특히 핵심적이었던 완디와슈 전투를 포함한 7년 전쟁과 미국 독립 전쟁 모두에 참전했습니다). 클라이브를 경멸해서 서로 잘 소통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알가알부할 수 없습니다.

야수가 죽었다: 프리드리히 대왕은 러시아 제국의 엘리자베타 여제의 죽음, 그리고 전쟁을 지속하고 싶지 않았던, 프리드리히를 숭배했던 그녀의 조카인 표트르의 즉위 소식을 듣고 “야수가 죽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치가 떨어지는 무모함: 키브롱과 그 며칠 전에 라구스(포르투갈)에서 영국이 거둔 성과는, 키브롱 만의 위험한 모래톱을 헤치며 공플랑을 추격하라는 호크 제독의 공격적인 결정으로 그 절정을 맞이합니다. 초반에 프랑스 군을 전투에 투입하려는 시도에서 발생한 몇 번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혹은 단순히 중요한 순간이 임박한 상황이라서 그러한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에드워드 보스카웬 제독은 프랑스 제독, 오귀스트 드 라클루의 함대가 첫 번째 봉쇄 지점을 빠져나올 때의 도착 지점을 예상하고 드라클루의 후위가 선회하는 것에 이목을 빼기지 않은 채, 자신이 열어 둔 봉쇄 지점에 대한 완벽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로 인해 보스카웬은 라구스 근처에서 전투를 강행하여 프랑스 함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늑은 프리츠는 1740년에 프로이센 왕위를 계승한 군사적 천재 프리드리히 2세의 별칭입니다. 그는 프로이센을 전장과 학문 분야 모두에서 무시하지 못하는 유럽 강국으로 만들었고,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과 7년 전쟁 모두에서 프로이센의 영토를 늘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프리드리히 대왕”이라는 존칭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 전쟁 타임

랄리 백작, 토마스 아르튀르는 1745년, 자코바이트의 난 동안 아름다운 찰스 왕자의 조언자로 활동했습니다. 찰스가 컬로든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랄리는 인도로 가서 동인도 회사 군대에 대항하여 큰 진전을 이루다가 안타깝게도 완디와슈 전투, 그리고 인도 남부의 프랑스 영토 대부분에서 에어 쿠테 경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프랑스 군의 실패로 인해 열린 군사 법정에서 뒤플렉스와 함께 회생양이 되어 참수당했습니다.

브로이 공작, 빅토르 프랑수아는 7년 전쟁에서 프랑스 원수 대부분의 부사령관 직을 맡았습니다. 그는 믿음직스럽고 유능했으며, 민덴 전투의 패배 이후 결국 스스로 지휘권을 잡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존경하는 그랜비와 값지만 선은 지키는 경쟁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루이 콜롱 드 빌리에르는 1754년 당시 네세티 요새의 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으로부터 항복을 이끌어 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프랑수아 드 사베르는 제국의 투쟁의 처음 세 번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성공을 거둔 군사령관입니다. 컴벌랜드 공작에 맞선 하스텐백 전투와, 또 다른 하노버 왕가의 지휘관(폰 오베르크)에 맞선 루터베르크 전투에서 자신의 용맹과 진취성을 뽐냈습니다. 그는 피셔 추격병대, 왕실 자원부대를 포함한 프랑스의 최고 명문 부대를 이끌고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숲 속을 달리는 자: 프랑스어로 “쿠르 데 부아”, 프랑스의 사냥꾼이자 무역업자인 이들은, 자신들이 교류하고 있는 원주민들에 버금가는 캐나다와 북아메리카 야생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췄습니다. 그들은 북아메리카의 전쟁에서 프랑스의 승리를 위해 정찰병과 안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 영토에 대한 전문 지식과 친숙함은 프랑스가 전투에서 이점을 차지하는데 종종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갱빌 백작, 루이 앙투안은 오랜 경력 동안 놀랍도록 다양한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항해사, 선장, 육군 장교, 그리고 외교관으로서 세기에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서 그는 1749년의 패배 전까지 성공을 거둔 대부분의 프랑스 군사 작전에 참여했지만, 그의 지휘관인 몽칼름 후작이 전사한 후에는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공세로부터 퀘벡을 지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세계 일주를 한 최초의 프랑스 선장이 되었습니다(솔로몬 제도의 부건빌 섬은 그의 이름을 딴 섬입니다). 미국 혁명 동안 그는 영국에 대한 또 한 번의 기회를 잡았는데, 프랑스 함대의 휘하로 들어가서 요크타운 전투에서 도망치려는 콘월리스의 희망을 산산조각 내는 데 일조했습니다.



생베란 몽칼름 후작, 루이 조제프 드 몽칼름 고조은 7년 전쟁에서 가장 유능한 프랑스 지휘관 중 한 명입니다. 전쟁 초기에 그는 영국의 오스위그 요새와 윌리엄 헨리 요새를 함락시켰습니다. 이는 적이 뉴프랑스로 향하는 진격에 핵심적인 일격을 가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엄청난 규모의 영국 군을 상대로 타이콘데로가 요새를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퀘벡에서 벌어진 아브라함 평원 전투에서 몽칼름은 공격적인 군사 행동을 보이며 위험에 처했고,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 리에나르 드 보주는 용맹하고 유능한 장교이며, 프렌치 인디아 전쟁 초기에 원주민 연맹에 대한 지도력과, 원주민의 전쟁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머논가힐라 전투 초기에 전사했습니다.



카스트리 후작, 총사령관 샤를 외젠 가브리엘 드 라클루아 드 카스트리는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에서의 용맹함을 뽐내며 전국적인 찬사를 받았습니다. 7년 전쟁의 로스바흐 전투와 민덴 전투 등에서 프랑스가 패한 상처를 극복하며 용감하게 싸웠고, 결국 클로스터 캠펜 전투에서 브라운슈바이크를 물리쳤습니다. 이는 그가 프랑스 정부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장기적으로 쌓아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바스티유가 함락되었을 때, 카스트리는 눈치 빠르게 왕당파 세력에 합류했습니다.

머논가힐라 매복: 뒤켄 요새를 향한 브래독의 원정에서, 프랑스와 원주민 연합군의 매복으로 브래독 군의 사기가 꺾였고, 영국에게는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험준한 지형으로 인해 브래독의 포병은 무력화되었고, 원주민 전사들의 이 지역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 영국 군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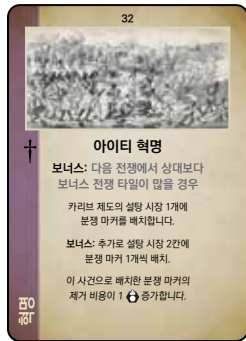
하디크의 기습: 안드라스 하디크 백작은 콜린에서 패배한 프로이센의 눈을 속이고, 약 5,000명의 기병 부대를 이끌고 베를린을 급습하여 점령했습니다. 하디크의 군사들은 수비군을 완벽히 기습했고(수적으로 우세한 병력이 있다고 속이고, 실상은 적은 부대로), 적의 항복을 받아내어 막대한 몸값을 뜯어낸 뒤, 프로이센 군의 증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재빠르게 떠났습니다.

나와브의 집결: 프랑스의 인도 군사력은 인도 동맹국의 배신 등 그 신뢰가 떨어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영국은 인도에서 은밀하게 협의를 진행하여 상황을 더 좋게 만들었고, 이를 통해 굉장히 많은 사안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원주민 동맹국들은 종종 전투가 어려워지는 조짐이 보이면 바로 철수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연맹들이 더 안정적일 수 있었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와브의 존재는, 두 왕국의 인도 지배권 행방에 결정적인 우위를 가져다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혁명 시대: 사건 카드 및 내각 카드

사건 카드:

#31 누트카 사건: 1789년에 누트카 해협(밴쿠버 섬 근처)에서 영국과 스페인 무역상들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스페인은 태평양 연안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였으나, 더 이상 영국 무역상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전쟁을 피하기는 했지만, 스페인은 해상로에 대한 독점적인 통제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평양 해상 무역에 대한 권한은 실제로 매우 높은 수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32 아이티 혁명: 투생 루베르튀르가 주도한 1791년의 생도맹그 노예 폭동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노예 폭동이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주권국가 아이티를 탄생시켰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여 공화국을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하지만, 루베르튀르를 영원한 국가 원수로 지정하고 가톨릭을 유일한 종교로 허가했습니다). 루베르튀르는 프랑스 군과 스페인 군을 서로 싸우도록 부추기는 한편, 자신의 공화국이 지속적인 군사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채비를 갖췄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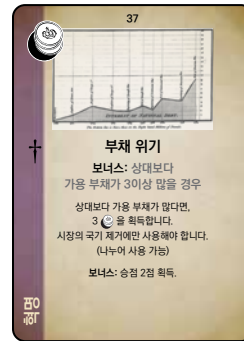
설정 도움말: 엄밀히 말하면 아이티 혁명이 일어난 1791년은 제국의 투쟁이 다루는 시기를 벗어난 해이지만, 루베르튀르는 아이티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적어도 몇 년간 자유인이었기 때문에 이 혁명은 잠재적으로는 더 일찍부터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이티 혁명은 카리브 제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를 사건 카드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33 아홉 자매 롯지: 프랑스에 있는 몇 개의 친미 메이슨 롯지 중 하나인 아홉 자매는 재정적으로나 지성적으로나 미국 독립 혁명에 대한 지원을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이상주의 단체들로 인해 발생한 추진력은 미국 독립 혁명의 성공과 함께 그 힘을 얻었을 뿐 아니라 프랑스 혁명까지 계승되었습니다.

#34 소금세: 프랑스 소금세는 농민과 하층 노동자들이 절대 군주 정제(앙시앵 레짐) 동안 겪어야 했던 수십여 가지의 세금 중에서 가장 큰 부담을 주었던 세금이었습니다. 이 소금세는 놀랄 정도로 끈임없이 지속되기도 했고, 18세기에는 사실상 개혁이 불가능했던 대표적인 프랑스 조세 제도로서, 1790년에 혁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거의 바로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이 집권하며 소금세가 다시 부활했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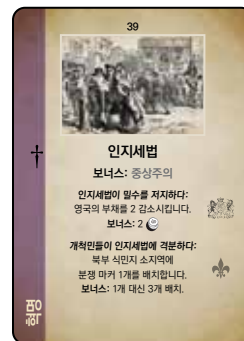
#35 예수회 해산: 1760년에 마르티니크의 설탕 산업이 무너졌습니다. 프랑스의 재정 위기를 초래한 이 사건은, 마르티니크 식민지를 주로 예수회가 소유하고 관리했다는 점이 밝혀지며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 재앙 같은 사실로 인해 예수회의 정치적, 종교적 경쟁자들(특히 자신과 왕과의 관계를 부정한 예수회 신자들을 증오한 폼파두르 여후작)로 하여금 오랫동안 묵힌 앙심이 폭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회 신도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법적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 소식은 가톨릭 군주 국가들에 널리 퍼졌고 심지어 교황도 이를 지지했습니다.

#36 국부론: 경제학자에게 1776년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스코틀랜드의 자연철학자 아담 스미스의 <국부의 본질과 원인에 대한 연구>의 출판이라는 진지한 주장이 있습니다. (미국 독립 혁명이란요?) 국부의 참된 본질, 전문화의 중요성, 그리고 인간의 자기 본위적 행동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결과(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비유함)에 대한 체계적이고 영향력 있는 분석으로, 이 책은 오늘날 사회와도 완벽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7 부채 위기: 두 강대국이 제국의 투쟁의 혁명 시대까지 진행했다면, 전쟁, 해군 함대 건조, 그리고 기타 수많은 투자에 막대한 자금을 소비했을 것입니다. 그중 일부는 (영국 동인도 회사처럼) 결실을 맺었고, 그중 일부는 그렇지 못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 위기와 인플레이션과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위험은 그 시대의 공황과 불확실성을 야기시켰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프랑스는 한참 오래된 금융 및 조세 방식을 개선할 능력이 영국에 비해 떨어졌습니다.

#38 동아시아 노략: 이 시기에 카리브해 연안에서는 상선 나포 및 해적 행위가 크게 감소했지만, 아프리카 해안과 동아시아, 그중에서도 특히 말라카 해협 및 동남아시아 왕국 근처에서는 여전히 성행했습니다. 유럽 열강들이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도 점차 그들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었지만, 이로 인해 인도를 거치는 무역의 위험이 가중되었습니다.



#39 인지세법: 종이 제품 및 문서에 대한 영국의 세법이 1765년에 통과되었고, 이는 미국 독립 혁명의 주요 불씨가 되었습니다. 영국 의회는 이 법을 불과 몇 달 만에 폐지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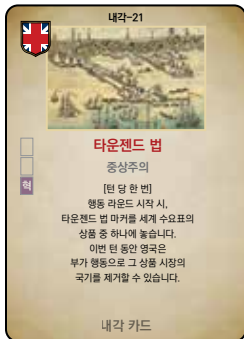
#40 포클랜드 위기: 영국과 스페인 모두 남아메리카 남쪽 끝에 있는 포클랜드 제도(“말비나스 군도”)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1770년에 스페인 군이 영국의 에그몬트 항구를 점령하며 국제 위기를 촉발시켰습니다. 7년 전쟁에서 패한 뒤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쇼아쉴은 스페인의 소유권을 지지하며 포클랜드 제도를 둘러싼 전면전으로 확대시키려고 했으나, 루이 15세가 이에 반대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서 자리를 비운 쇼아쉴에게는 최후의 타격이 됐습니다.

#41 국 & 부쟁빌: 세기의 위대한 탐험가로서 영국에는 제임스 쿡이 있었다면, 프랑스에는 부쟁빌 백작, 루이 앙투안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럽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호주와 하와이, 그리고 캐나다 북서부와 알래스카까지 국의 항해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항해 기록과 지도력이라는 위업을 세웠습니다. 부쟁빌의 세계 일주는 프랑스 선장으로서 처음이었으며, 그가 타히티 섬을 방문했을 때 작성했던 세세한 기록은 문화 인류학이 전파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태평양 섬인 부건빌 섬은 2차 세계 대전의 치열한 전투 중심지였습니다.

내각 카드:

#내각-19 제임스 와트: 와트가 증기 기관을 발명한 것은 아니지만, 증기 기관 설계에서 중요한 개선점을 고안했습니다. 이 개선으로 인해 증기 기관의 효율성과 용도의 범위가 크게 향상되면서 영국의 산업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각-20 교황-하노버 협상: 교황이 제임스의 잉글랜드 왕위 계승자로 그의 아들인 찰스 스튜어트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은, 잉글랜드에 대한 하노버(즉, 개신교도들)의 통치를 노골적으로 정당화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이전까지 항상 성좌의 지지를 받던 자코바이트에게 심각한 타격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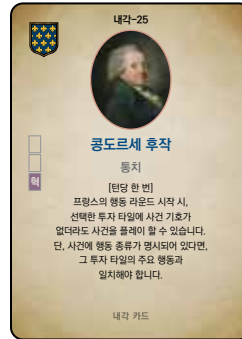
#내각-21 타운젠드 법: 타운젠드 법(당시 재무장관인 찰스 타운젠드와 연관됨)이라고 불리는 영국 의회의 일련의 수입 관련 법은 1766년의 선업법에 의해 통과되었는데, 이는 아메리카 식민지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영국 의회의 입법권 및 통치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법은 잘 작동하지 않았는데, 특히 이 법의 잠재적 목표였던 뉴욕 식민지에서 그 반발이 더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타운젠드 법은 예상보다 빨리 폐지되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그 뒤 이어진 차법은 보스턴 차 사건을 촉발시켰습니다.

#내각-22 에드먼드 버크: 영국의 저명한 학자 중 한 명인 버크는 프랑스 혁명에 대한 신랄한 비평을 담은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이라는 책을 집필했는데, 그 책에서 프랑스 혁명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사회 자본 및 문화의 파괴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의 전통주의 사상에 대한 입장으로 인해, 그를 최초의 현대 보수주의자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 독립 혁명을 지지했으며, 식민지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쏟는 것은 비생산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각-23 튀르고: 경제학자이자 중농주의(초기 경제학의 결정적 이론 중 하나)의 계승자인 자크 튀르고는, 루이 16세 시절에 재무장관을 지냈습니다. 세금과 부채의 간소화를 위한 그의 의도는 왕실의 재정 상황을 크게 개선시켰지만, 한직 및 특권(여왕을 포함한)을 축소시킴으로써 주요 신하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그는 미국 식민주의자들의 대의에는 깊은 공감을 했지만, 그들을 대신하여 개입할 여유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그리고 프랑스가 노예 제도를 영속화하려는 나라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내각-24 북아메리카 무역: 프랑스가 무역을 통해 북아메리카의 천연 자원을 확보하면서, 북아메리카 모피의 고유성으로 인해 프랑스 왕좌를 위한 상당한 자금을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위신도 크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내각-25 콩도르세 후작: 수학자이자 초기 게임 이론가인 콩도르세 역시 정치와 관련한 수많은 글을 썼습니다(여성 및 인종 평등에 대한 지지 포함). 그는 많은 후보들 사이에서 유권자들의 선호도를 결정하는 콩도르세 방식을 고안해 낸 것으로 유명한데, 이 방식은 매라운드마다 절반의 후보를 떨어트리는 연속된 쌍대결을 말합니다. (콩도르세 방식이 대규모 집단의 선호도를 가장 잘 집계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이론이 있습니다.)

#내각-26 라부아지에: 앙투안 로랑 드 라부아지에는 아마도 프랑스,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위대한 화학자이며, 폭넓은 화학 및 생물학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물질이 연소 같은 화학 작용을 하더라도 질량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고, 산소와 수소 같은 원소의 성질을 별도로 분리하여 설명했으며, 화학 체계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미국 독립 혁명 동안 독단적이고 구식인 프랑스 조세 제도를 담당했던 사실로 인해 그의 운명은 심판 받았으며, 결국 1794년에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미국 독립 전쟁: 타일의 배경



영국 전쟁 타일

콘월리스 백작, 찰스 콘월리스: 찰스턴 포위전, 뉴욕 군사 작전, 그리고 길퍼드 법원청사에서 유명한 전투가 벌어졌던 캐롤라이나 등, 미국 독립 전쟁의 몇몇 주요 군사 작전에서 영국 군을 이끌었습니다. 물론, 그는 1781년에 요크타운 전투에서 포위당해 항복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의 독립이 확실해졌습니다.

윌리엄 하우: 이전에 벌어진 두 번의 세계 분쟁에서의 베테랑으로서, 1777년 사임할 때까지(새러토가 군사 작전의 실패로 인해) 미국 독립 전쟁에서 북아메리카의 모든 영국 군을 지휘했습니다. 뉴욕 점령은 성공적이었으나, 대규모 전투에 대한 그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워싱턴 군과 대륙 파견군은 많은 사상자를 낳게 되었습니다.



에어 쿠테 경: 제2차 영국-마이소르 전쟁에 영국이 펼친 첫 번째 주요 반격에서 믿을 수 없는 전장 영향력과 지휘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게임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쿠테의 연합 부대, 정규군, 그리고 세포이(인도 용병 부대)는 포르토노보에서 하이데르 알리가 이끄는 대규모의 인도 군과 싸워 그들을 격퇴시킵니다. 여세를 몰아 그는 하이데르 알리와 그의 아들 티푸 술탄(후에 제3차 영국-마이소르 전쟁에서 콘월리스와 맞붙습니다)에 다시 한번 결정적인 승리를 합니다.

브랜트 자원부대: 조지프 브랜트(타이엔다네기)가 이끄는 모호크 족과 토리 민병대의 연합 세력, 자원부대들은 패트리엇 정착지를 습격하고 약탈하고 괴롭혔습니다. 모호크 족으로 태어난 브랜트는 영국과 이로쿼이 족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가이 칼튼 경은 1775년, 퀘벡에서 영국 군을 지휘하며 대륙 군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결국 1775년 말에 몬트리올은 함락되었지만, 칼튼은 영국 왕위를 위해 싸운 최초의 헤센 군의 도움으로 퀘벡에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독립 전쟁 말기에 헨리 클린턴 경에 이어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영국 군을 지휘했습니다.

콘플랜터는 세네카(이로쿼이 연맹의 일원) 족장으로, 부족원들에게 “백인들의 전쟁”에 개입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로쿼이 족 연맹이 영국 편에 서기로 결정하자, 콘플랜터는 세네카 전사들을 이끌고 격렬하고 잔혹한 국경 싸움에 참전합니다. 전쟁 후에 콘플랜터는 자신들의 영토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미국 정부와 세네카 족 사이의 연락책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긴 했으나, 결국 이에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존 스튜어트는 체로키 족 및 남부 식민지의 다른 원주민 부족들과 맺은 영국 연맹을 설계한 인물입니다. 그는 체로키 족을 부추겨 패트리엇 지원 센터에 대한 습격 및 공격 공세를 감행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1775년에 투엘브 마일 강에서 영국 군과 함께 싸웠습니다.



조지 브리지스 로드니 제독은 7년 전쟁과 미국 독립 전쟁에서 여러 번의 중요한 함대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그는 효율적이고 활발한 해군 지휘관이었으며, 포위된 지브롤터를 결정적으로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급습과 포획 포상에도 가장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미국

독립 전쟁 동안 영국-네덜란드 전쟁을 추진하는 것에 일조했으며, 영광과 부의 사냥꾼이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존 안드레 소령은 하우의 정보 장교였습니다. 대담하고 총명한 젊은 장교 안드레는 미국 독립 전쟁에서 영국의 스파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웨스트포인트 요새를 영국에 넘기도록 설계하여 거의 성공시킬 뻔했으며, 그에 이어

베네딕트 아널드의 망명도 도왔습니다. 결국 미국 순찰대에 체포되어 스파이임이 틀림난 그는 조지 워싱턴의 명에 의해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베네딕트 아널드는 아마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배신자일 것입니다(흠... CIA 내부 첩자였던 알드리치 아메스보다 더). 유능한 항해사이자 군인인 아널드가 보여준 새러토가에서의 작전은 승리에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그가 퀘벡에 가한 침공은, 비록 예정보다 빨리 철수했으나 영국의 캐나다 지배권에 대한 끔찍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아널드는 성급하고, 전쟁으로 인해 돈이 부족했고, 전쟁으로 인한 상처에 시달렸으며, 결국 전쟁에 기여한 공로 대비 부족한 보상에 분개하여 패트리엇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웨스트포인트 요새를 영국에 넘겨주기 위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영국 스파이인 존 안드레가 체포되어 아널드의 반역 행위를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폭로에 대한 워싱턴의 불신으로 인해 아널드는 영국으로 도망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었습니다.

영국-네덜란드 분쟁: 제4차 영국-네덜란드 전쟁은 미국 독립 전쟁 당시 영국이 전세계로 주의가 분산되자, 네덜란드가 기회주의적인 시도를 감행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오라녜의 윌리엄이 영국 왕좌에 오르기 이전부터 해상권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전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네덜란드의 참패로 끝났습니다(파리 협상 테이블에서 영토 손실의 일부를 회복할 수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영국에 있어 중요한 순간에 해군 우선 순위 선정 및 자원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을 야기했습니다.

헤센: 하노버의 선제후 겸 국왕인 조지 왕의 위상으로, 독일 내의 굉장히 다양한 영주 및 유권 인사 출신인 독일 군인들(최소 50,000명 이상의 엄청난 수)의 충성을 이끌어냈습니다. 대부분이 하노버, 헤셀카셀, 헤세나우 출신이라, 짧게 ‘헤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전쟁 타일

로상보 백작, 장 바스티스트 도나티앵 드 비뮈르는 프랑스가 영국과의 전쟁 및 참전을 선언했을 때, 미국 식민지 개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낸 프랑스 군대의 총 지휘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1780년에 식민지에 도착해서 우선 전략적으로 안전을 확보한 후에, 뉴욕에서 워싱턴의 군대와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요크타운 군사 작전에서 영국에게 승리했습니다.

그라세 백작, 프랑수아 조제프 폴 드 그라세 제독은 메릴랜드 체서피크 만 어귀에서 영국 군을 격파한 프랑스 함대를 이끌며, 콘월리스의 군대 보급과 철수를 막고 프랑스와 미국에 식료품과 총탄을 보급했습니다. 콘월리스에게는 항복 이외의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조지 워싱턴("미국의 키키나투스")는 총사령관으로서 대륙 군을 지휘했으며, 미국 독립 전쟁에서 패트리엇가 승리한 후에는 제정된 헌법 하에 새 공화국의 첫 번째 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미국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이자 전쟁 지도자 중 한 명인 워싱턴의 명성과 전설은 미국 문화에서 가장 강력한 역사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라파예트 후작, 마리 조제프 폴 이브 로슈 질베르 뒤 모티에는 18세기 최고의 명성을 날린 인물이자, 전반적으로 미국 독립에 대한 사상과 워싱턴을 열렬히 추종한 인물입니다. 높은 학식을 가졌고, 매력적이며, 군 장교로서도 재능이 뛰어난 라파예트는 프랑스가 공식적으로 참전하기 전에 식민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으며, 1777년에 벌어진 브랜디와인 전투부터, 동계를 보낸 벨리 포지, 이어 몬머스 전투, 요크타운 전투를 경험하며 그 특출함과 인격을 뽐내며 활약합니다. 명예 미국 시민권을 받은 단 8명의 인물 중 한 명인 라파예트는 열정적인 페지론자이기도 했으며, 프랑스 혁명이 비극적인 방향으로 가기 전, 그 초기 단계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피에르 앙드레 드 쉬프랑 드 생 트로페 제독은, 세계 영국 프랑스 분쟁에서의 수많은 장교들처럼 미국 독립 전쟁, 그리고 이전의 두 전쟁에도 참전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7년 전쟁에서 동인도 회사를 지원하는 영국 함대와 의 장기전에 돌입하면서 드 쉬프랑은 최고의 해군 전략가이자 이론가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드 뷔시 카스텔노와 함께 해상은 드 쉬프랑이 맡고 육지는 드 뷔시가 맡는,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또한 하이데르 알리의 영국에 대한 군사 작전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모건의 소총 부대는 소총을 무장한 패트리엇 경보병으로 구성된 정예 부대이며, 부대원들의 뛰어난 사격술과 미국 독립 전쟁 동안의 광범위한 활약상으로 유명합니다. 워싱턴과 그린 휘하의 이 정예 부대는 북부 및 남부 전장 모두에서 싸웠습니다.

드 뷔시 카스텔노 후작, 샤를 조제프 파티시에는 유능한 군인이었으며, 그의 후견인은 바로 뒤플렉스였습니다. 그는 미국 혁명 전쟁 동안 인도에서 영국의 영토와 자산을 몰수하고, 마이소르 전쟁에서 하이데르 알리, 티푸 술탄과 공조한 결과, 프랑스는 인도 서해안의 중요한 항구인 마예를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보급선이 복구되면서 인도에서의 소유권 상당량을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으나, 동인도 회사가 인도의 방어를 위해 강경하게 대응함에 따라 결국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드 뷔시 카스텔노 후작, 샤를 조제프 파티시에는 유능한 군인이었으며, 그의 후견인은 바로 뒤플렉스였습니다. 그는 미국 혁명 전쟁 동안 인도에서 영국의 영토와 자산을 몰수하고, 마이소르 전쟁에서 하이데르 알리, 티푸 술탄과 공조한 결과, 프랑스는 인도 서해안의 중요한 항구인 마예를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보급선이 복구되면서 인도에서의 소유권 상당량을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으나, 동인도 회사가 인도의 방어를 위해 강경하게 대응함에 따라 결국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폰 슈투이벤 남작, 프리드리히 빌헬름 아우구스트 하인리히 페르디난트는 프로이센 군대의 직업 장교로, 미국에 와서 근대 방식의 전투, 조직, 전술로 대륙 군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는 "블루북"(미군의 질서와 규율에 관한 규정)을 집필해 대대로 전해지는 미군의 훈련 교리를 규정했습니다. 그는 요크타운 전투에서 군을 지휘했고, 전쟁 후에는 미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너새니얼 그린("싸우는 퀘이커 교도")은 영국으로부터 미국 남부 식민지를 탈환하기 위해 끈질긴 군사 작전을 주도했습니다. 그는 브랜디와인 전투, 길퍼드 법원청사 전투, 저먼타운 전투, 트렌턴 전투, 그리고 유트 스프링스 전투를 포함한 수많은 주요 교전에 참전했습니다. 인내심, 판단력, 리더십으로 널리 찬사를 받은 그린은 패트리엇의 승리를 위해 어느 미국 장교 못지않은 행보를 보였습니다.

잠잠했던 이스트 강 바람: 워싱턴은 운 좋게 내려앉은 안개(뉴욕 동쪽 항구를 따라 불어오는 평범한 바람에도 날아가버릴 것으로 예상했을 듯한)를 틈타 뉴욕을 빠져나감으로써, 하우 장군이 거느리던 잘 정비된 대규모 영국 침략군에게 완파될 뻔한 신규 대륙 군을 무사히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벙커 힐 전투: 렉싱턴 콩코드 전투가 끝난 다음 달, 미국의 식민지 개척자들은 보스턴 외곽의 브리즈 힐(실제 벙커 힐 근처)에 요새를 건설하여 영국군의 공격을 유도했습니다. 결국 영국이 그 요새를 점령했지만 점령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는 이번 전쟁이 장기화되고 유혈이 낭자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첫 전조였습니다.



작가의 말

GMT Games에서 2005년에 황혼의 투쟁을 출시한 이후, 제이슨과 저는 다시 한번 함께 게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국의 투쟁 역시 세계적인 규모의 초강대국 간의 갈등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지만 초강대국들의 정체성이 잘 알려진 황혼의 투쟁과는 달리, 제국의 투쟁의 두 열강은 향후의 근대 시대를 누가 지배할 것인지를 놓고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이는 사소한 차이가 아닙니다. 제국의 투쟁은 두 배나 많은 역사를 다루고 있고, 두 플레이어의 국가가 서로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수 차례의 총격전이 그 특징이며, 그 시대의 다른 강대국들 역시 좀 더 세밀하게 다루어 한다는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라면 그 시기와 상황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지만, 실상은 제국의 투쟁을 설계함에 있어 황혼의 투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국의 투쟁을 설계하며 가장 어려웠던 것은, 단순히 92년 간의 역사와 4번의 주요 전쟁이라는 방대한 내용을 어떻게 하면 간단하고 빠르게 플레이 할 수 있는 게임으로 녹여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플레이어들이 유로 게임과 전쟁 게임이라는 각 분야의 특징적인 규칙을 익히지 않더라도 군사, 정치, 사회, 문화 경쟁을 즐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국의 투쟁은 플레이어들로 하여금 높은 수준의 의사 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이러한 모든 역학적인 요소를 일원화할 수 있었습니다. 플레이어들은 빈약한 정보력과 권력 위임의 복잡한 단계로 인해 군사의 직접적인 통제가 제한되었던 왕조와 정부를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플레이어들이 결정을 내리거나, 자신의 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게임 시스템, 하지만 그러한 요소들을 최적화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한 게임 시스템이 이 게임에 알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국의 투쟁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극적인 영토 변화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쟁으로 얻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패자는 조약 점수라는 보상으로, 이어질 분쟁에서의 재기와 복수를 다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신, 언제 어디에서 전력을 행사하고 기회를 포착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핵심 의사 결정을 반복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동 라운드마다 상대의 선택 사항을 제한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가지고 있는 사건 카드와 투자 타일로 가능한 최상의 조합을 만들어야 합니다. 황혼의 투쟁에서는 매 턴마다 손에 쥐고 있는 불리한 사건들을 관리하고, 게임 보드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그러한 사건들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국의 투쟁에서는 역으로, 가능한 최상의 조합과 전력의 움직임, 그리고 상대의 움직임을 생각하며 플레이 하거나, 그 움직임을 차단하는 것에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들은 때로 우리에게 황혼의 투쟁에서 대체 역사의 구현에 대해 요구합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흥미로운 냉전 사건들은 이미 게임 내에 아주 많았지만, 확실히 사건 카드 더미에는 '만약 이랬다면?' 하는 사건들은 없었습니다. 황혼의 투쟁은 턴 제로 확장을 제외하고는 그런 방향으로 구현하지 않았지만, 제국의 투쟁의 사건 카드는 COIN 게임에서 볼 수 있는 카드와 유사합니다. 제국의 투쟁에서는 사건 카드와 행동 점수를 분리하여, 불균등한 카드를 뽑는 운의 영향을 제한하고, 대부분의 사건 카드에서 프랑스에게 긍정적인 방향, 영국에게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플레이어들이 특히 이러한 요소를 즐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공유해 온 친영국 요소와 친프랑스 요소가 게임에 잘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제국의 투쟁의 출시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게임 제작을 마무리하고 이 게임을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에 있어 힘이 되었던 것 중 하나는, 이 두 강대국에 대한 우리의 감탄과 애정이었습니다. 제국의 투쟁에서 프랑스와 영국이, 각각의 위대함을 충분히 보여주면서 공동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제국의 투쟁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 중 하나는 각 국가 진영의 특화된 기능을 가진 내각 카드를 고안해 낸 것입니다. 플레이 테스트 결과, 영국이나 프랑스나 플레이 할 때 너무 비슷한 느낌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그리고 내각 카드가 우리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사건 카드의 설계와 함께, 내각 카드로 인해 우리는 두 적대국의 서로 다른 세계관, 그리고 각자의 우선 순위 및 야망이 반영되는 균형 잡힌 경쟁 게임 경험을 제작했기를 바랍니다.

비록 모든 역사적 시대마다 각자의 매력적인 개성이 있지만, 이 시대에는 특히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특색있는 인물들이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각 카드와 사건 카드 활용을 통해 그러한 인물들이 게임 플레이 상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전쟁 타일에도 군사적으로 활약한 인물들을 포함시켜서, 그들이 전쟁의 역사를 휩쓸며 누비는 것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제국의 투쟁의 초기 버전에서는 특정 지도자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했으며, 전쟁이 진행되는 방식에 있어 더 많은 비대칭적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식으로 플레이 하는 것은 좀 투박해 보였습니다. 만약 플레이어들이 제국의 투쟁에 잘 적응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이 버전이 익숙해진다면, 이미 새로운 시스템 및 게임 플레이가 숙달된 이 게임에, 무리라고 생각했던 몇몇 아이디어들을 다시 적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일부 플레이 테스터들이나 옆에서 지켜보던 이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나폴레옹은 다루지 않았나요?' 간단히 답하자면, 게임의 초기 버전에는 나폴레옹 시기를 포함했는데, 게임 시간이 지금보다 거의 1/3 정도 더 길었고 사실상 게임 극 후반부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복잡한 규칙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국의 투쟁에서 수많은 가치를 얻어낼 수 있다면,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혹은 이 혁명의 후계자들)을 다루는 확장이나 후속 게임을 제작하는 유혹을, 우리로서는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게임 상자 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많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종이로 만든 게임 속에서 긴장감과 승리와 영광의 시간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18세기의 특징인 그 격동과 그 드라마를 접해 보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18세기의 마법에 빠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그 시대를 좋아한다면, 우리의 구현 방식에 많은 공감을 할 것입니다.



이점 타일 개요

유럽

- **독일 외교:** 러시아, 스웨덴, 바바리아 중 한 칸의 국기를 1 외교 행동 점수를 사용하여 제거합니다.
- **실레지아 협상:** 프로이센, 독일 연방주 중 한 칸의 국기를 1 외교 행동 점수를 사용하여 제거합니다.
- **이탈리아의 영향력:** 스페인, 오스트리아 중 한 칸의 국기를 1 외교 행동 점수를 사용하여 제거합니다.
- **지중해의 음모:** 스페인, 오스트리아, 사르데냐 중 한 칸에 분쟁 마커 1개를 배치합니다.
- **발트 해상 무역:** 부채를 2만큼 감소시킵니다.
- **중앙유럽 분쟁:** 유럽 내 연맹 중 한 칸에 분쟁 마커 1개를 배치합니다.
- **해상 보루:** 1 군사 점수를 사용해서 상대 함대 1개를 해군 구역으로 이동시킵니다.

북아메리카

- **모피 무역:** 북아메리카에 있는 시장 한 칸의 국기를 1 경제 행동 점수를 사용하여 제거합니다.
- **이로쿼이 족의 침략:** 모피 시장 한 칸에 분쟁 마커 1개를 배치합니다.
- **알곤했 족의 침략:** 모피 시장 한 칸에 분쟁 마커 1개를 배치합니다.
- **패트리엇의 시위:** 북아메리카 한 칸에 분쟁 마커 1개를 배치합니다.
- **밀:** 북아메리카에 있는 시장 한 칸의 국기를 1 경제 행동 점수 적게 사용하여 제거합니다.

카리브 제도

- **과일:** 카리브 제도에 있는 시장 한 칸의 국기를 1 경제 행동 점수 적게 사용하여 제거합니다.
- **럼주:** 카리브 제도에 있는 시장 한 칸의 국기를 1 경제 행동 점수 적게 사용하여 제거합니다.
- **나포 면허장:** 카리브 제도에 있는 보호받지 않는 시장 한 칸에 분쟁 마커 1개를 배치합니다.
- **해적의 안식처:** 카리브 제도에 있는 보호받지 않는 시장 한 칸에 분쟁 마커 1개를 배치합니다.
- **노예 계약:** 2 군사 행동 점수로 새로운 함대 1개를 건조합니다.

인도

- **분리주의 전쟁:** 면직물 시장 한 칸에 분쟁 마커 1개를 배치합니다.
- **금습:** 인도에 있는 시장 한 칸에 분쟁 마커 1개를 배치합니다.
- **권력 투쟁:** 카나틱 연안에 있는 시장 한 칸에 분쟁 마커 1개를 배치합니다.
- **비단:** 인도에 있는 시장 한 칸의 국기를 1 경제 행동 점수 적게 사용하여 제거합니다.
- **면직 산업:** 인도에 있는 시장 한 칸의 국기를 1 경제 행동 점수 적게 사용하여 제거합니다.

참고 문헌 및 게임

- John B. Owen, *The Eighteenth Century*, Rowman and Littlefield 1975.
- Derek McKay & H.M. Scott, *The Rise of the Great Powers 1648-1815*, Routledge 2014.
- Robert and Isabelle Tombs, *That Sweet Enemy: The British and French from the Sun King to the Present*, Knopf 2007.
- Robert Markham, *Soldier Kings: The Seven Years War Worldwide*, Avalanche Press 2002.
- Zara Anishanslin, *Portrait of a Woman in Silk: Hidden Histories of the British Atlantic World*, Yale 2016.
- Stephen Yafa, *Cotton: The Biography of a Revolutionary Fiber*, Penguin 2005.
- Paul Lacroix, *France in the Eighteenth Century: Its Institutions, Customs, and Costumes*, Bickers & Son 1876 (original); ed. Suzanne Alleyn, Spyderwort Press, 2017.
- Douglas Peers, *India under Colonial Rule 1700-1885*, Routledge 2013.
- Emile de Bonnechose, *The History of France from The Invasion of the Franks under Clovis to the Accession of Louis Philippe*, Routledge 1856 (tr. William Robson).
- Linda Frey and Marsha Frey, *The Treaties of the War of the Spanish Succession: An Historical and Critical Dictionary*, Greenwood 1995.
- Julian Stafford Corbett, *England in the Seven Years War: A Study in Combined Strategy* (vol. II), 1907; ref. Pickle Partners Publishing 2011.

만든 사람들

- 게임 디자인:** Ananda Gupta & Jason Matthews
- 게임 개발:** Ralan Hill
- 아트 디렉터:** Rodger B. MacGowan
- 커버 아트(게임 박스, 설명서):** Terry Leeds
- 지도, 카운터, 카드:** Terry Leeds
- 설명서 및 요약표:** Charlie Kibler
- 편집:** James McFetridge, Kai Jensen, Jeff Loewenguth, Margo Marquess, Andrew Polak
- 생산 기획:** Tony Curtis
- 제작 총괄:** Tony Curtis, Rodger MacGowan, Andy Lewis, Gene Billingsley & Mark Simonitch
- 플레이테스터:** Peter Card, Riku Riekkinen, Daniel Haas, Chris Cantrell, Rajan Gupta, Harold Buchanan, Pat Mulvihill, Trevor Bender, Charlie Roselius, Tim Porter, Barry Setser, Michael Lahl, Nicholas Werner, Nicolas Emmanuel Chaffron, Marco Poutré, Tom Kassel, Marc Guenette, David Stengle, Luis Soto, John Echeverria, Michael Solomon, David Amidon, Andrew Kluck, David Abecassis, Nicolas Gillon, Pierre Faucher, Hervé Godinot, Steve Cole, Ryan O'Donoghue, Joel Toppen
- VASSAL 모듈:** Joel Toppen
-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Solveig Singleton
- 페이지 아트:** FreePic (www.freepik.com)
- 한국어판 번역:** 김지수(Noname) **한국어판 제작:** DiceTree Games

